



참여·협력·영광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3년 12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09호

<http://www.snua.or.kr>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許瑄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①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②702-2233 FAX: 703-0755



지난 11월 4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동문 가족과 재학생 등 관객 1천여 명이 객석을 예운 가운데 제7회 서울대 동문 교향악단(SNU Phil) 연주회가 열렸다. 이날 공연아는 버그너,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에프 등의 작품이 선보였다(사진 좌). 리셉션에서 張九聖동문(지휘), 金用宇동문(악장), 朴炫堯동문(협연)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커버스토리 3면>

제7회 동문 교향악단 연주회

흥겨운 선율에 희망 등뚝 담아

관악추추

음악은 사람의 심성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한다. 음악은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음악엔 감동이 있고 화합을 열어내는 힘이 있다. 특히 교향악의 화음에는 화합과 협동의 메시지가 녹아 있다.

지난 11월초에 열린 서울대 동문 교향악단 연주회가 바로 그 아름다운 화합의 무대였다. 선후배 동문이 하나되고 유대를 끈끈하게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연주회 수익금은 전액 장학기금으로 쓰기로 함으로써 선후배간 사랑의 실천 마당이 되기도 했다. 음악의 순수한 기쁨에 사랑의 감동이 더해져 더욱 빛이 났다.

올해 7회를 맞은 서울대 동문 교향악단 연주회는 서울대만의 잔치로, 동문들의 문화강화를 해소하고 모교위상을 높이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교향악단 수준 향상과 문화예술 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주자들이 서울대 출신이면서도 동창회 활동을 뛰어넘어 각 분야에서 안착된 예술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 나라 음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같은 평가를 실증한다.

음악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 활력소이자 윤택유라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요즘처럼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입시본위와 지식인능 중에서도, 또 정신문화가 메말라 가는 시대에서는 예술에 대한 향수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와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또 삶이 짜릿하고 고단할수록 음악이 발휘하는 치유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동문 교향악단의 연주회도 여는 때보다 더 빛나 보인다.

예술이 인간에 내재된 가능성을 표출하게 하고 음악이 있는 곳에 즐거움과 희망이 있다는 선인들의 말에 재삼 귀 기울일 가치가 있다. 문화 예술인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몫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다. 삭막해져만 가는 학내의 정서를 적시고 알뜰한 환경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도 동문들의 문화예술활동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 보람있는 일에 모교 출신들이 선도역을 담당해야 한다. 그것이 세계 속의 모교 위상과 국가 문화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길이다. 지식과 상품만이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 순위를 재는 잣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銅)

연주회를 통한 화합과 사랑 실천

2004년 甲申年 신년교례회 개최

- 일 시 : 1월12일(월) 오후 6시
- 장 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중구 소공동 소재)
- 회 비 : 없음
- 문 의 : 02)702-2233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만든 는설위원 金哲洙, 金昌邑, 朴世熙, 林炯斗, 崔育林, 李炯均, 南仲九, 金錫銅, 金好俊, 宋錫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燮, 安炳燦, 李元龍, 安國正, 사람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憲 편집기자 朴宰亨, 姜智媛, 金南柱 광고부장 金千鶴

최근의 부동산 폭등, 사교육 망국론이 다시 대두되면서 강남이 그 모든 부조리의 집현지이며 상징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사

사건전 갈등 관계에 있던 정부와 신문, 방송과 신문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답합이라도 한 것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강남에 산다는 것 자체가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인식될 분위

가이다. 강남의 직업별 구성비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다.

그들은 자녀에게 물질적 부보다는 머리에 지식을 넣어 주는 것이 보다 확실한 재산이라는 교훈을 당대에서 체험을 통해 깨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몰려들면서 강남 러시를 촉발했다. 고교 평준화 이후 거주 지역에 따라 다닐 학교가 정해지니 과거의 명문 고교와 학원들이 모여 있다는 강남으로 몰리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였을 것이다.

그런데 강남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겨냥하는 교육 효과관 사교육의 효과만일까? 소수를 중심으로 지극히 폐쇄적으로 돌아간다는 강남 사교육가의 이너서클(inner circle)을 거친 경우는 모르겠으나 그 언저리에서 맴

돌다 끝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강남 사교육의 명성은 과장된 것이라느낌을 갖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강남 러시가 계속되는데는 다른 유인도 있을 것이다.

강남은 한국적 성향 에너지의 상징 같은 곳이기도 하다. 60년대 경



도리나무당

강남, 그 에너지의 정체



朴明珍
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제 개발 과정에서 고속 개발의 가장 기지적인 공간이 강남이었다. 점차 경제 활동의 중심지가 강북 4대문 안에서 이곳으로 이동했으며 90년대 말 펼쳐 붙은 전원지도 강남이었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소비문화를 접하는 나들이 장소도 강남역 부근이나 코엑스들이 되어 가고 있다. 어지러운 속도로 급변해 가는 환경에 가장 민감하고 재빨리 적응하는 온갖 지혜가 구사되는 곳이 바로 강남이다.

강남의 유인 동력은 바로 이처럼 강남이 보여주는 성장 에너지, 발전을 향한 욕구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반대편에는 그 같은 에너지와 욕망이 만들어내는 거품과 소비의 환상과 쓰레기 또한 만만치 않다. 투기와 왜곡된 사교육의 열풍이 그중 대표적인 것일 것이다. 그 거품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장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면 강남을 단죄한 할 것이 아니라 거품과 쓰레기에 가려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의 정체를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해야 한다.

정부의 강남 정책은 그 에너지의 부정적인 요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긍정적 요소를 어떻게 살려서 새로운 비전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SNU, 「서울 국가 대학교」라고?

서울대학교 동문들은 서울대학교의 영문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국가가 보증하는(?) 국립 학교를 다짐하는 자랑스러운 속에 내셔널을 강조하는 듯하다.

약자로 SNU도 그럴싸하게 사용된다. 하기가 전국의 국립대학교의 영문명 전부 「내셔널」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

동문 여러분, 「유니버시티 오브 서울」이란 이름을 들어보았는지? 그런데 있나? 그럼,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에듀케이션」은 어떨진지. 물론 추자는 짐작대로 서울교육대학교의 영문명이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는 서울산업대학교이다.

한국의 많은 대학교들은 서울대학교에 질서와 부러움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비난하면서조차 흉내내기, 유사하게 작명 개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많은 동문들이 느끼고 있겠지만, 첫째 그 내셔널이란 단어가 매우 어색하다. 외국인들은 다소 가우증한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학명칭이든 국립기관이든 국립, 왕립(왕이 있는 나라들), 주립 등을 구태여 표시하지 않는다. “정부나 주정부에서 설립하고 지원을 한다고 해도 말이다. 국립 아닌 국가기관이 있는가? 국립을 뜻한다면 「코리아나 「코리아」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하긴, 「코리아 유니버시티」하면 고려대학교가 선풍해 있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란 단어 의미나 위치가 부적당하여 「서울 국가(국가적인) 대학교」란 식이다. 공무원전용인가? 서울이 국가인가? 외국인들이 어려울정할 수밖에 없다.

미국 미시간에 있는 대학교를 보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 있고,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다. 대체로 「유니버시티 오브～」인 학교가 더 브랜드가 높은 학교이다.

왜 그럴까. 이것은 유래가 있다. 원래 전통있고 품위있는 가문은 「～의 아들,이란 뜻으로 성씨 앞에 「of」에 해당하는 단어(전치사)를 표시했다.

독일의 경우 폰 피테와 같은 식이고, 프랑스는 드를 같은 식이다. 스페인은 데 마르코 식이다. 일본의 경우도 고대 이름에 「～노」라고 붙었다. 프랑스에서는 아예 접두사로서 성씨와 붙어있다. 영어는 성씨에 그러한 어법이 없어졌지만, 접두사로서 흔적은 있다. Fitz, O', Mc이 그것으로, 핏제럴드, 오도노, 맥아더 등이 그 예이다. 예컨대 대학교 이름에서도 그런 누앙스를 간직하고 있다.

결국 미국인에게 「유니버시티 오브 서울」이 「서울 유니버시티」보다 좀 우월(도미넌트)한 누앙스를 준다. 하긴 우리는 번거롭게 어순이 바뀌는 「of」보다 그냥 우리식 순서의 번역이 적성에 맞는 지 모른다.

그럼 서울대학교의 영문명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유니버시티 오브 서울」이 그렇듯 하지만, 이게 불가능하다면 대안으로는 「서울 유니버시티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영문 명칭에 근사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모든 국립대학교의 영문명에서 구차스런 내셔널을 빼고 유니버시티 오브 부산 또는 부산 유니버시티 오브 코리아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데와 달리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이래저래 어렵다.



金局
(79년 乙大卒)
서경대 교수

수학과동창회 특지장학회 설립

본회에 1억1천2백만원 전달

지난 9월 8일 수학과동창회(회장 김永煥·사진)가 특지장학회 기금으로 본회에 1억1천2백만원을 출연했다.

수학과동창회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장학기금을 본회 재단법인 관악회에 이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2004년 1학기부터 '수학과동창회 특지장학회' 명의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金秉順·李志鎬동문 母子

특지장학금 1억원 추가 출연



孔大植·明泰鉉·孫一振·金秉順동문.

재단법인 관악회 金秉順(4기 AMP)이사가 지난 11월 28일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자신의 고향회에서 본회·孫一振상임부회장에 장남李志鎬(83년 醫大卒·보라대병원 정형외과)동문과 공동명의로 특지장학금 1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지난 2000년 1억원을 출연해 '金秉順특지장학회'를 설립한 金秉順은 2000년 1학기부터 金

동문이 특별히 지원한 모교 법대 및 의대 재학생 두 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해왔으며, 이번 추가 출연으로 더 많은 재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됐다.

金동문은 지난해 장남李志鎬동문과 공동명의로 분당 모교병원에 2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모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朴明濤특지장학회

석사과정 2명에게 연구비 지원



朴明濤이사, 權慶訓·柳然煥장관, 白南國원장, 鄭文鎬교수.

한국조선연연구소 朴明濤(76년 保大院卒·관악회 이사)이사는 지난 10월 31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보건대학원 白南國원장, 환경보건학과 鄭文鎬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3학년도 2학기 '朴明濤특지장학회' 연구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차동문은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權慶訓·柳然煥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연구비 전달은 여덟 번째로 차동문이 지난 99년 12월 18일 출연한 5천만원을 본회에서 관리, 그동안 발생한 이자로 모교 보건대학원 석·박사 학위

논문 연구계획서 발표자 중 우수한 학생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금리 인하로 인해 지난 해까지 박사과정을 포함한 3명에게 지급해오던 것을 올해 1학기부터 삭감 지급해오고 있다.

법과대학

친선 바둑대회 열어

법과대학동창회(회장 李相赫)는 지난 11월 9일 모교 관악캠퍼스 평생생활관에서 모교 安京煥학장, 崔松和교수, CJ 孫京植회장, 金斗鎬·魯善行·明鶴承·吳相鎬현호사, 중앙은행사

정 金正-이사장, 명지대 趙炳倫부총장, 鄭鎭圭서울교정장, 모교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프로 9단인 洪鍾廣(68년卒)동문이 심판으로 나선 가운데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30회 동기회(金光鎬·柳振烈·黃京男동문)가 단체전 우승컵을 차지했으며, 개인전 우승은 趙寬行(63년卒)동문이 차지했다. 인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단체전 준우승: 16회 동기회(金碩鉉·朴政一·裴泰鎬동문), 3위: 29회 동기회(朴鉉文·宋鎭賢·全旭東문), 격려상: 학생연합회(崔松和동문·정혜성(4년)·최진원(3년)군), 애석상: 15회 동기회(李洪志·金廣鎬·咸泳榮동문), △개개인전 준우승: 朴鍾廣(65년卒)동문, 3위: 金成泰(64년卒)동문, 격려상: 모교 재학생 최승기(1년)양, 애석상: 李紀率(62년卒)동문.

경영대학원

감사패 및 장학금 수여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金英大)는 지난 10월 31일 서울를 방문에서 금복주 金鳳龍회장, 朴武鎭한국검찰조사연구소장, 신원회계법인 李鐵河대표, 인간개발연구원 張萬基회장, 대영테크시스템 孔大植사장, K.MEX컨설팅센터 高昌鎬대표 등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임원초청 세미나 및 2003년도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모교 경영학과 趙東成(71년 商大卒)교수가 「21세기 전략 패러다임 - 장기 전략계획과 전사적 이미지경영」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강연 후 金회장은 경영대 학장을 역임한 趙東成교수(사진右)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모교 재학생 김희경(석사 1년)양과 손원경(석사 1년)군에게 각각 1백50만원의 장학금을 전했다.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12월 26일 강연회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文憲一)는 지난 11월 21일 역삼동 소재 감감술대 식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보통신부 陳大齊(74년 工大卒)장관을 특별연사로 초청, 초청강연회를 갖기로 했다.

李吉女 경원대 총장 초청 골프



지난 11월 23일 경원대 李吉女(의대동창회장·본회 부회장)총장이 동창회 임원들을 초청, 인근그랜드CC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골프모임은 지난 3월 본회 정기총회에서 제5회 '관악대상(참여부문)'을 수상하고, 또 10월 모교 개교 57주년 기념식에서 제13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된 바 있는 李총장이 동창회 임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李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격려와 후원으로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거워진다」고 말하고 「앞으로 모교는 물론 우리 사회와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동문 여러분들의 사업과 업무에서도 「버디」는 물론 「이글」과 「홀인원」에 해당하는 고사를 날려, 주위 사람들에게서 칭송받는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준우승에 농대동창회 尹勳煥회장, 메달리스트에 모교 鄭明熙부총장이 선정됐다. 또 동기스트에 KBS 金仁奎이사, 나ier리스트에 의대동창회 朴鍾廣부회장이 선정되고, 버디상은 청아치과병원 金鎭淑이사가 수상했다.

약대동창회 李德煥회장은 격려상, 본회 朴熙伯부회장은 장부상을 받았으며, 한국신문방송인클럽 李炯均회장이 참여상, 사대동창회 李東一회장이 협력상, 본회 孫一振상임부회장이 영광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천의대 高昌鎬 명예총장, 중앙일보 南仲九평화연구소장, 본회 孔大植·洪性大부회장, 朴英俊감사, 許晳士부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방대 안보과정 동창회 창립

초대 회장에 鄭海洙동문 추대

林회장 "선후배간 유대가 중요"



좌로부터 두 번째 국방대 黃圭軾전임총장, 林光洙회장, 국방대 權泳基총장, 鄭海洙·李斗鎬·許堉東문.

지난 11월 28일 국방대학교 내 안보대강당에서 국방대 안보과정 동창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許晳士부총장을 비롯해 진주산업대 鄭海洙(68년 法大卒)총장, 국방대 權泳基(육군 중장)총장, 黃圭軾전임 총장, 李斗鎬(65년 法大卒)前교육부 차관 등 안보과정 졸업생 및 내외 인사 2백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방대가 그동안 수준 높은 학문적 성과를 이루는데 역대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동문들의 자기희생과 봉사가 밑거름이 됐다」고 말하고 「동창회 출범을 계기로 하나의 정점을 이뤄 선후배간에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쌓아가길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발전을 기원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총회에서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은 鄭海洙동문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鄭회장은 국무부조정실장 재임시 본회 17대 부회장을 지낸 바 있다. (李)

모교 李基俊전임총장

정년기념 문집 출판기념회 열어



孫一棟·鄭哲圭·林光洙·李基俊·李連雨 등문, 한 명 건너 宋丙洛, 孔大植 등문.

지난 11월 6일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棟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許璫사무총장을 비롯한 2백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李基俊전임총장 정년기념 문집 「호를 알고 변화를 일구어냈다」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 문집은 李전임총장의 정년을 맞아 후학들이 그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李정임총장의 글들을 모아 출판한 것이다. 또 李정임총장의 삶에 대한 철학과 더불어 지인들이 바라보는 李전임총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겼다.

행사에서 앞서 李정임총장의 약력 소개와 함께 기념 사진 슬라이드를 관람하고 문집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후학들이 마련한 기념 문집 전달식에 이어 본회 林회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모교가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노력한 공로들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됐다」며 「오늘의 이 자리

를 마련해준 李교수의 추학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건강과 함께 여러 동문과 후학들에게 같이 남는 석학의 표상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李전임총장은 담사를 통해 「그동안 한 일도 별로 없었지만 어떤 자리나 위치에 있을 때 책임감에 대해 많은 것을 느껴왔다」며 「때로는 맞지 않는 자리를 맡을 때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도와주고 격려해주 덕분에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61년 모교 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李전임총장은 금속연료 종합연구소 화학공정개발연구원, 동남아공학교육협력 사무총장, 공학교육기초조사연구단장, 메시시강립대 화학공학과 외래 부교수, IBM연구소 객원연구원, 모교 전자계산소 소장·공대 학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공화학립원 회장 등을 맡고 있다.

(亨)

미술대학

모교 지원기금 1천만원 약정



미술대학동창회(회장 李信子)는 지난 11월 7일 갤러리 우데에서 朴敏俊(62년卒)·白耀廷(65년卒)·全 駿(65년卒)·曹泳哲(65년卒)·朱敏敦(68년卒)·劉仁棟(70년卒)부회장, 李鶴淑(58년卒)·金芝蘭(60년卒)·金貴淑(61년卒)·洪貞姬(64년卒)·丁玉璫(66년卒)·金奎玉(68년卒)·洪貞淑(69년卒)·黃仁惠(69년卒)·李吉遠(73년卒)·朴流律(74년卒)이사, 李容惠(82년卒)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2002년부터 운영해온 동창회 홈페이지(www.snuart.com)에 많은 동문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치기로 하고, 네트워크 관리 및 유지에도 더

욱 힘쓰기로 했다.

또한 2004년 4~5월 중 미래출신 동문들의 작품을 인터넷으로 관람할 수 있는 사이버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모교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각 기금 모금운동을 벌여 학술정보자료관 도서 구입비 1천만원을 마련하기로 의건을 모았다.

영어교육과

1월 6일 신년하례회

영어교육과동창회(회장 朴柱仙)는 지난 11월 7일 서울클럽에서 조찬회를 가졌다.

이날 특별연사로 초청된 한국문예진흥원 玄基榮(67년卒)원장이 「문학에서의 변신의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펼치며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 가진 회의에서 2004년 1월 6일 오후 6시 프레스디언호텔 신세기홀에서 신년하례회, 5월 30일 오전 10시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농공동창회

「농공의 날」 행사 개최

농공동창회(회장 鄭夏禹)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문학관 중앙당에서 동문 및 가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농공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鄭회장의 인사말과 모교 李茂烈회장의 축사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 회칙개정을 통해 모교 교수로 1년 이상 재직한 비동문을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고, 상임간사를 총무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 효율적인 동창회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운영위원직을 신설하는 사항을 추가했다.

이어 동창회는 모교 재학생 이희영(박사 2년)·장태일·한이철·황성규(석사 1년)·이원희·정준의·최준호·황세운(4년)·권성길·박성직·백영기·이상훈(3년)·군, 이은정(3년)·양 등 13명에게 2003년 1, 2학기 장학증서를 수여했으며, 전임 趙範範(64년卒)회장, 韓重鎬(65년卒)감사, 李熙榮(54년卒)·嚴泰壽(57년卒)·柳根學(60년卒)장학재단 이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작년에 개최된 농공의 날 행사를 위해 특별 찬조한 靑空文(79년卒)·金成光(76년卒)동문과 행사전반을 주관했던 38회 동기기 金宇擇(86년卒)·李成珠(86년卒)동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올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朴鍾熙(87년卒)·姜恩熙(87년卒)·진재용(91년卒)·이호재(96년卒)·정남수(97년卒)동문과 기숙사 자여증을 취득한 張重鎬(84년卒)·고광문(94년卒)동문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마 퍼

李元醵



심각한 위기!

토목공학과

7회 동기기회, 기금 5백만원 쾌척

토목공학과동창회(회장 黃光雄)는 지난 11월 2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4백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졸업 30주년을 맞은 27회 동기기회(회장 權宰)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7회 동기기회(회장 李鶴林)가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5백만원을 출연했으며, 黃회장이 모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김예리·민배현(3년)·양, 김주형·이현석·최현석(4년)군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2백50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모교 朴昌福(70년卒)교수가 행사 진행을 맡은 27회 동기기회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인하대 공대 沈名錫(73년卒)학장이 安哲浩(52년卒)·朴仲鉉(57년卒) 명예교수에게 사은품을 전했다.

이어 모교 재학생 김승은(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4년)·양이 바이올린으로 축하연주를 선보였으며, 이화여대 행정학과 金錫俊(73년卒)교수가 「글로벌 시대 한국의 미래」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건축학과

모교에 장학금·도서기금 전달



건축학과동창회(회장 李永熙)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35동 건축학과 전시실에서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커링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졸업 25주년을 맞은 32회 동기기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32회 동기기회(회장 金大翼)는 모교金光鉉학과장에게 장학금 및 도서기금으로 각각 1백만원씩을 전달했으며, 장학금은 율해부터 10년간 총 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졸업 25주년 기념으로 모교에 장학금 3백만원을 전달했으나,

모교 재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32회 동기기회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교 金文藻·金亨杰·尹振豪·李光魯·鄭日榮·洪性穆에게 교수, 金震均·金光秀·金光鉉·崔載勳·洪性傑·李誌錫·朴海根·余明勳 교수에게 사은품으로 향우의 일식을 전달했으며, 지난 여름 태풍 매미로 수해를 입은 동문에게 이날 행사에서 모금된 위로금을 전했다.

(表)



한국은행 박 승태

“남북 경제협력이 한국경제의 큰 전환점 될 것”

대담 : 朴時韓(75년 農大卒·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보로 논설위원

지난 11월 25일 본보 朴時韓논설위원이 한국은행 총재실에서 박 승태를 만나 국내 경제현황과 그 대처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비즈니스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근황을 소개해주십시오.

「얼마전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와 중앙은행 워크숍 참석차 태국 방콕과 네팔의 카트만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네팔의 에베레스트산 경관이 아주 뛰어나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여행이 잦아서 그런지 항공기 중이염에 걸려 아직도 귀가 멍멍한 상태입니다.

—총재께서는 모교의 자랑스런 모교가 배출한 인재입니다. 그런 총재님의 학창시절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김제 출신으로 농가에서 태어났으며 집안은 낙관하지는 못했습니다. 집에서 *삼강*을 꼭 다시 가져와 타고 가야만 하는 이리공고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학교를 다니며 당시 서울 중앙대에 위치한 상파대학을 진학했어요. 그리고 보니 기억나는게, 처음 서울에 올라와 보니 복덕방이 많았습다. 그때 복덕방이 무슨 의미인줄 알았죠.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에 등록만 해놓고 집에 내려와 농사를 짓다가 시험 때가 되면 다시 올라가 친구들한테 노트를 빌려 시험을 치만 기억이 남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에 대해 낙관하고 계신데, 어떤 이유에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올 4/4분기가 경기 침체의 타일을 벗어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정도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두 건국자인 미국과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 또한 여기에 속하리라 봅니다. 최근 우리 경제 지표에서 민간 소비는 계속 침체되어 있지만 이를 제외한 수출, 생산, 건설 등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으며 기업경기인 사자수(BSI) 또한 내년 경기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마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란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내년 경제는 밝게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은 같은 역동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겠냐 하는 데에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국가경쟁력이 약화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한 충격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 경제가 고임금과 단계에 와 있으며 두 번째는 때마침 저임금의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중국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개방범위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가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소위 사회적 고비용과 저효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비용·저효율은 높은 임금과 교육비·교통



직접 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이 경쟁력을 상실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겠죠.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앞서 말

“민주적 합의도출 메커니즘 시급”

이공계 기피…과도기적인 착시 현상

물류비, 투쟁적인 노사관계, 비생산적 정치 싸움,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무진려한 욕구 분출,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등과 같은 소위 사회적 비효율이 맞물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장기적인 역동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들을 하루 세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업들이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에 더 적극적입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활성화가 절실한데 우리 기업들의 국내투자를 늘리고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없는지요.

「지금의 우리 기업들의 국내투자 기피, 해외기업의 한국투자 기피현상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는 투자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에 공장을 세우는 것과 중국에 공장을 세울 경우 생산 면에서는 경쟁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 등과 같은 해외로 시설을 옮기려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른바 산업의 공동화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한 바와 같이 사회적 고비용과 저효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또 다른 돌파구로 남북 경제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을 하루 빨리 성사시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에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북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일 남북통일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산업기반이 약한 북한에서 많은 주민들이 남하할 경우 우리는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자본의 북한 투자는 한국 경제가 살기 위한 돌파구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데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 안정이 필요하네. 정치불안, 기업과 회계비리, 신용불량사 문제 등 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 얘기한 바 있는 사회적 비효율 문제를 봐도 연관이 있는데 정치불안, 집단이기와 같은 문제가 큰 현안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 국가사업 중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새만금사업, 경인 운하, 부안 댐 폐기물 시설 등이 하나 같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책사업 등이 갖가지 민원에 밀려 있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지요.

이와 관련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합의를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메커니즘이 한국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 나라는 군사정부 하에서 권위주의적인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도출을 국가가 주도해서 일사불란하게 해낸 것입니다. 이때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후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소위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붕괴되고 서구 민주적인 리더십 또는 시민적인 리더십에 의한 사회적 합의 도출 메커니즘이 자리잡아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민주적 리더십이란 개개인의 서로 다른 의견이 보편주의 가치관과 합의주의 가치관이라는 두 가지 잣대에 의해 걸러져서 하나로 결집되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주의 가치관이란 사회전체 이익을 극대화시켜 그 안에서 나와 나의 가족, 이런 소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국민들의 가치관은 보편주의적 가치관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또는 특정 지역·학교를 바탕으로 한 혈연, 지연, 학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전체 이익이 아닌 일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집단 이기주의 또는 연고적인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합의에 의해 옳고 그름이 판단되지 않고 원에 의해 가부가 결정되는 무질서한 양상이 표출되고 있죠. 우리 나라는 민주적인 리더십에 의한 국민의 합의 도출기구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어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주도한 물질적 혁명에서 이제는 정신적인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신적인 혁명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비효율적 제거되는 것이 한국 경제발전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날에는 경제만 쇄진했지 현재는 정치, 사회, 경제가 함께 개혁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최근 이라크 파병문제가 찬반논쟁으로 뜨겁습니다. 이제는 이라크 파병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모든 나라가 명분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 지표로 삼고 경쟁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도 결국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중국 경제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동북아경제공동체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동북아 중심지가 되기 위해 어떤 전략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19세기는 영국중심, 유럽중심의 시대였었습니다. 하지만 1914년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 갔죠. 토인비(Arnold J. Toynbee)나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 등 과거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는 동북아시아

대」, 또는 「아시아 중심시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고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마침내 1960년을 정점으로 미국의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고 일본을 필두로 한 중·일, 조금 넓게 보면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들이나 무역 증가들이 여타지역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21세기는 동북아시아라고 따라서 한국도 자동적으로 그 중심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에 들어오면서 개방혁명과 IT혁명이라는 두 가지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혁명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고 최대 피해자는 동북아였어요.

이 혁명들을 계기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전환되던 세계 중심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90년대 이후 미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높은 경기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세계 역사 주도권은 역시 미국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북아중심시대」는 오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21세기는 역시 동북아시아대입니다. 다만 지연될 뿐이지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의 주도권이 연장되어 왔으나 현재 중심세력이 동북아로 이행되는 대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가 열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동북아로 주도권이 이행하려면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데 개방체제와 IT혁명에 대해서 강력한 적응력을 가져 이것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몇몇 국가들이 적대 관계를 버리고 모든 국가들이 협력체제로 공동체를 추구해 나가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협력체로 갈 때, 늦어도 21세기 중반 이전에는 동북아중심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한국, 일본, 중국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고 나아갈 때 아시아의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중앙은행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아시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해야겠지요.

—대학입시, 대학원 진학 등으로 긴장감을 더해 가는 입시철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모교 최초로 열린 공과대학 입학설명회가 별칭한 가운데 막을 내려 이공계 기피현상을 싹잡할 수 있었습니다. 모교를 지원하는 지망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이공계보다는 의과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 시점에서는 그런 판단을 가질 수 있겠지요. 기원 공대를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활동하다가 40대나 50대에 퇴직당할 위험에 비해 의사나 변호사로서 평생전직에 종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때문이었지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와 같은 개방혁명과 IT혁명으로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과도기적인 하나의 착시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매일수룩 긴 안목을 가지고 현명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이공계를 권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20~30년 뒤에도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한 예로 전라북도에 기차길이 열리던 당시, 전라북도 정읍시는 조그만 마을이었고, 全準장군을 배출한 고부란 마을은 원래 현감이 있던 곳으로 당초 호남선이 고부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림들의 반대로 할 수 없이 정읍으로 호남선이 지나가도록 조정해 정읍은 현재 시가 됐고 고부는 면으로 남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멀리 볼 줄 아는 긴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 많은 분야에서 동문들이 우리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문들의 책임이 막중하네.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동문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모교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공헌을 한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 모교 출신들은 머리가 우수한 반면에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평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문들은 대학이 훌륭하다는 데 너무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실력과 충성심으로 사회에 봉사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동문들이 합리와 정도의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사회에 헌신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관료들이 권위를 자기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며 국민에게 행사하려는 태도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동문들은 권위가 아닌 봉사로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동문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변화에 적응력을 갖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대해 자기 적응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유용하더라도 다른 시점에서는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어요.

—오랫동안 교직과 공직 생활을 해오셨고 사우디아라비아 한국경제교문단장, 세계발전 심의위원, 지정업자소속파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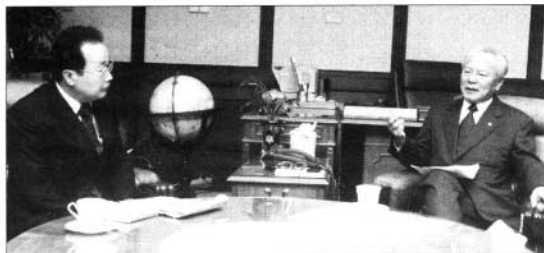
프로필

- 1961년 모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 1974년美뉴욕주립대 경제학박사
- 1981년~78년 한국은행 조서역
-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경제교문단장
- 1976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1976년~78년 서울신문 논설위원
- 1978년 정부 금융제도 심의위원
- 1984년~87년 중앙대 정경대학장
- 1987년 국제경제학회 회장
- 1987년 중앙대 경제문제연구소장
- 1988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1989년 건설부 장관
- 1993년~96년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 1999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 2001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원장 같은 독특한 이력도 갖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중학교 때부터 꿈이 경제학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지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서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원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한국은행에 입사해서 조사부에 발령을 받아 16년을 근무하다가 1976년에 중앙대 교수로 전직을 했지요. 전직을 하게 된 것은 한국은행에서 정책성으로 뽑혀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 것이 큰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약 2년 동안 대통령 경제수석과 건설부 장관을 지냈어요.

공직에 있으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한다면 1989년 5대 신도시의 건설을 계획한 것과 한국은행법을 개정한 것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기한다면 신도시를 건설할 당시 일산과 분당의 땅값이 평당 3만원 내외였습니다. 허허 벌판이었는데 지금에 와 보니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나 놀라움 따릅니다.



모교소식

제8기 평의회회 개최

林光洙회장 등 평의원에 위촉 의장에 법대 金東熙교수 선임



평의회장이 林光洙(사진 오른쪽)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모교(총장 鄭雲燦)는 지난 11월 3일 관악캠퍼스 대학본부 소회의실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학술원 李鍾注(54년 醫大卒)회장, 국회 尹榮奎(60년 文壇大卒)교육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朴容晟(65년 商大卒·본회 부회장)회장, 삼성전자 尹鍾龍(66년 工大卒)부회장, 교육인적자원부 徐凡錫(75년 師大

卒) 차관, 법주법원 林希澤(83년 社會大卒)변호사, 안철수연구회 安哲秀(86년 醫大卒)대 표, 한 국 제 분 李喜祥(22기 AMP)회장, 李明博 博士 출신

장, 기획예산처 卞良均차관, 金熙烈관악구청장, 한국일보 張明秀이사 등 13명을 학내·외의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제8기 평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어 모교 호암관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평의회회 1차 회의에서 의장에 법대 金東熙(63년 法大卒)교수, 부의장에 공대 權旭鉉(66년 工大卒)교수

를 각각 선임했다.

이번 평의회의는 지난 8월 민주적 의사결정체제의 구축을 위한 운영체제 개선 작업으로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강화된 뒤 처음 구성된 것이다. 새롭게 변모된 평의회는 학외인사 평의원을 포함해 기존 40명에서 65명으로 늘어났게 됐다.

평의회가 아닌 교수, 직원, 학생, 동문, 학부 등 학내·외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모교가 지향하는 '열린 대학'으로 변화하기 위한 가시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모교는 새로 구성된 평의회의 출범을 통해 총장의 독주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올바른 학교정책에 대해서는 민주적 지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학내외의견을 수렴해 평의회를 교수회의로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자리잡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평의회회가 의결할 사항은 주로 장기적 대학발전과 교육철학 등에 관련된 기본사항으로서 교육 및 학사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대학(원) 또는 부속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학부·학과와 학과 폐지에 관한 사항, 교원인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이다.

「훌륭한 공대 교수상」에 劉丁烈·李吉成교수 선정



劉丁烈 교수



李吉成 교수

공과대학(학장 韓民九)은 지난 11월 7일 기계항공공학부 劉丁烈(69년 工大卒)교수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李吉成(70년 工大卒)교수에게 「훌륭한 공대 교수상」을 수여했다.

李교수는 공학교육의 국제화

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劉교수는 유동충정연구분야에서 세계적 업적을 발표해 관련분야 학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이 인정돼 연구상을 수상했다.

「여성과 사회」 교양강좌

개설 20주년 「홈커밍데이」 가제



국민윤리교수와 李鍾竹교수가 지난 83년 강의개설 이후 20년간 강의를 맡아왔으며 토론과 이슈 중심의 실험과목으로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모교는 지난 11월 15일 교양강좌인 「여성과 사회」 개설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이 강연을 들었던 수강생 2천여 명을 초청해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여성학 관련 강좌로는 모교 최초로 「여성과 사회」는 사범대

이날 행사와 초청강연 시리즈를 마련, 여성운동이론가인 영국 케임브리지대 줄리아 미셀교수를 비롯해 아시아재단 여성 프로그램 책임자인 캐롤 요스트 씨와 주한 프랑스대사관 파리보네 참사관 등이 강사로 나서 2주간 진행했다.

중앙도서관장에

인문대 철학과 許南進교수



지난 11월 26일자로 모교 중앙도서관장에 인문대 철학과 許南進교수가 선임됐다.

南進교수(사진)가 선임됐다.

許교수는 79년 모교 인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88년부터 92년까지 한양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92년 모교에 부임해 대학신문 부주간 등을 역임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형 장기연구지원사업의 일환인 「국가핵심연구센터」로 선정됐다.

국가핵심연구센터(National Core Research Center)는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연구와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 사업이다.

5단계의 엄정한 평가시사를 거쳐 국가핵심연구센터로 확정된 이들 센터에는 앞으로 연간 20여명의 연구비를 7년간 지원받게 되며 지원기간동안 학제간 융합분야의 연구과제 수행 및 학제분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된다.

이번 국가핵심연구센터 선정에는 27개 대학 45개 센터가 계획서를 신청해 22.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교 병원

「저시력 클리닉」 개설

모교 병원(원장 朴容熙)은 최근 시신경마초, 녹내장, 망막이상 등의 안과 질환으로 인해 최종 시력이 0.03~0.4에 불과한 저시력인을 위해 「저시력 클리닉」을 개설했다.

「저시력 클리닉」은 눈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환자에게 알맞은 보조구로 처방함으로써 저시력인들에게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매주 월, 화, 수요일 오후에 안과와 레에서 운영된다.

(연락처 : 760-2058)

실험동물 사용 의무규정 마련

동물학대 규제·사후관리 '엄격'

모교는 최근 국내 대학 최초로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자체 동물실험위원회(IACUC)를 운영해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어 무계획적 실험, 동물학대, 사후관리 소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왔기 때문에 모교는 빠른 내년부터 연구계획 단계에서부터 IACUC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동물실험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모교는 두 차례에 걸친 연구자담을 통해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규정

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실험 전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뒤 IACUC에 실험의 목적, 고통의 정도, 필요성, 사후 처리방법 등을 담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통과해야만 연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연구를 마친 후에도 종로 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체를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한 뒤 IACUC에 보고해야 한다.

나노융합시스템부

국가 지원사업으로 선정

공과대학 나노융합시스템연구센터(소장 朴榮俊·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최근 경상대 환경생명과학연구센터와 더불어

개원기념 국제 심포지엄 열어



디지털 병원과 노인 간호 및 영양관리와 최신 동향, 노인 의료와 관련한 약제 업무 등을 토론했다.

모교 분당병원(원장 成哲哲)은 지난 11월 7~8일 병원내 지하1층 대강당에서 「디지털 병원과 노인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원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첫날인 7일에는 노인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보는 시간과 미국 존스 홉킨스대 메카랜드 교수의 「노인인구에 적합한 스포츠 의학」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가졌다.

이어 8일에는 일본 및 중국의 의료계 석학들과 함께 21세기의

PDA로 진료기록 관리

모교 분당병원은 지난 11월 20일 진료카드 대신 무선랜과 연계된 PDA를 활용, 환자의 진료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1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환자의 진료기록과 병력, 처방, X-레이 등 영상이미지와 그래픽 자료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진이 간편하게 PDA로 입력 또는 검색할 수 있게 됐다.

(후)

공과대학

공과대학 동창회

과학기술 고급두뇌 양성의 산실

뿌리를 찾아서

이공계 꿈나무 장학회 설립·운영

글: 韓民九(71년 工大卒) 모교 공과대학 학장

글: 孔大輔(60년 工大卒) 대영테크시스 대표

1890년대 정부와 개화 지식인들은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근대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으며, 1899년 「상공학교 관제」가 반포되고 상공학교가 설립됐다. 1904년엔 농상공학교로 개편되고 1907년 다시 분리 독립되어 관립 공업전문학교로 전편되었다.

공업전문학교는 1916년 경성공업전문학교가 설립되어 흡수됐으며, 1922년 경성공업전문학교가 경성고등공업학교로 개편됐을 당시 경성공업학교라는 명칭으로 다시 분리 독립됐다. 1939년 경성광산전문학교가 경성고등공업학교로 분리 설립됐으며 1944년 경성고등공업학교는 다시 경성공업전문학교로 개칭됐다. 한편 1924년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은 1941년 이공학부를 증설했다.

일본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면서, 1946년 8월 22일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법」이 공포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설치됨에 따라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공학계와 경성공업전문학교 및 경성광산전문학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으로 통합 발족하게 됐다.

발족 당시에는 건축학과, 제철학과, 야금학과, 기계공학과, 섬유공학과, 전기공학과, 통신공학과, 조선항공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등 10개 학과를 갖춘 공과대학으로 시작, 1947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공과대학 설립초기에는 구 법과대학과 광업진흥사업연구소에서 수업을 하다가 1949년에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와 경성광산전문학교 교사 및 공릉동 캠퍼스로 이전하게 됐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전시연합대학」을 설치해 피난지역에서 각기 수업을 진행시켰다. 1952년 서울대학교의 가교사가 부산에 건축되면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은 부산에서 수학하게 되었고 1954년에 공릉동 본교사로 복귀했다.

공과대학은 1980년 1월 「서

울대 종합화 계획」에 따라 공릉동 캠퍼스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하여 발전과 확장을 거듭한 바, 현재는 6개 학부(기계항공공학부, 응용화학부, 재료공학부, 전기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컴퓨터공학부), 4개 학과(건축학과, 산업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5개 협동과정(기술경영, 기술정책, 도시설계학, 생물화학, 의용생체공학), 12개 연구소 그리고 11개의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출범 이래로 우리 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온 것은 물론 우리 나라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에도 공헌한 다짐들이 되어왔다. 공과대학은 과학기술 분야의 지도적 인재와 고급 과학기술 두뇌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으면서 학사과정에서는 두뇌산업사대에 대비한 신기술 도입, 생산성 향상을

담당할 산업체의 기술지도자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는 학문의 탁월성 유지와 사회에의 공헌을 목표로 후진교육과 연구개발을 전담할 교수 및 연구원 양성에 주력하는 국제적인 공과대학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현재 약 3백명의 교수와 3천5백여 명에 이르는 대학원생들의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실적과 연구능력 면에서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모교 공대 신공학관.

■ 연혁

- 1899년 상공학교 설립
- 1916년 경성공업전문학교 설립
- 1939년 경성공업전문학교 분리설립
- 1941년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설립
- 1946년 8월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경성공업전문학교 및 경성광산전문학교 통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으로 발족
- 1949년 공릉동 교사로 이전
- 1952년 부산 가교사 건립
- 1954년 8월 공릉동 교사로 복귀
- 1979년 12월 관악종합캠퍼스로 이전
- 1996년 1월 신공학관 301동 준공 (전기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입주)
- 2001년 11월 제2공학관 302동 준공 (응용화학부 입주)



2003년 신년하례회.

공과대학 동창회는 모교의 전신인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경성대학 이공학부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창회가 통합하여 1951년에 창립을 했으나 활동이 저조하다가 1965년 3월에 회칙제정을 기점으로 공식적인 동창회로 발족했다.

동창회는 건축, 금속, 기계, 전자 등 16개 기·과 모임과 여자 및 AIP 동문회, 뉴욕, 남가주, 북가주 및 일본지부 등 해외 지부와 국내 각 지역 지부 동문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현재 학사, 석사 및 박사출신 등 총 5만여 명으로 국내 산업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모토 아래 영재 교육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의식을 갖고 전임

65년 공식 출범...5만명 「맹활약」

李長茂(67년卒)학장과 현 韓民九학장을 위시한 모교와 成百誼(56년卒·한국해양기술상자 회장)동창회장을 비롯한 뜻 있는 동문들이 합동으로 이공계 꿈나무 장학회를 설립에 헌신하고 있다.

한편 개교 50주년을 계기로 1993년부터 모금을 추진한 엔지니어하우스가 2000년에 총 49억원을 투입하여 연건평 9백여 평 규모의 최신각각의 산뜻한 공간으로 준공돼 모교와 동문, 동문과 동문 상호간의 만남과 대화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다.

동창회 사업으로는 매년 1월 둘째 수요일에 신년하례회, 2월에 우수 졸업생 표창, 4월과 9월에 이사와, 5월 셋째 일요일에 정기총회 겸 등산대회를 개최하고 산하에 불암산회(골프), OB산악회, OB축구단, 동문극회 실극 그리고 교수들의 모임으로 불암회(골프), 불암

테니스회, 축구단 및 바둑 클럽 등이 조직돼 있으며 개교 기념일인 10월 15일에는 불암회와 불암산회의 합동모임으로 교수와 동문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모교 교수 중 학술, 기술 및 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교수에게 시상하는 등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전자동문회는 자체 장학재단인 전자통신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현재 25여 명의 기금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계동문회는 재단법인 관악회에 2억4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출연하여 총동창회의 장학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金貞植(56년卒·대덕전자 회장)교문은 모교 전기컴퓨터공학부와 응용화학부에

출정보실 (자료실 및 전산실), 趙炳

祐(64년卒·유종실업 대표)부회장은 재료공과부의 姜泰善(75년卒)교수가 신자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패시브소재연구센터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鄭哲奎(52년卒·신앙문화재단 이사장)교문은 1996년 10월 25일 신자부에서 신자부에서 2004년 5월 개관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본회에 대한 소식은 1980년부터 발행해왔던 동창회 소식지가 모교의 「서울공대」지로 1993년에 통합돼 개간으로 모교와 동문들의 연구활동을 도와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전임 元容襄(29년卒)교장이 제8대 총동창회장, 林光珠(52년卒·임광호진 회장)교문이 현 총동창회장으로서 관악언론인회를 조직하여 모교와 총동창회의 친교에 앞장서고 있고 대내외 총동창회 산하 전담을 추진하며 총동창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연혁

- 1965년 3월 본회 창립
경성공전, 경성광전, 경성고공,
경성제대와 경성대학 이공학부 및 서울공대 합동
- 1971년 3월 최초로 회원 명부 발행
- 1980년 3월 동창회 소식지 창간
- 1993년 1월 모교와 합동으로 서울공대지 창간
- 2000년 3월 새천년 맞이 회원명부 발간
- 2000년 9월 엔지니어하우스 개관
- 2003년 5월 신년 도서판 기공, 2004년 5월 준공 예정



동문기자의 취재수첩

세계 최대의 책 잔치이자 문화올림픽인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이 개막된 지난 10월 8일, 가장 먼저 제4전시관을 찾았다. 도서전의 중심편이자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곳이다.

「어떤 책이 나를 맞았을까?」 잔뜩 기대를 안고 들어섰는데 「어! 이상하다.」 책이 보이지 않는다.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사방을 둘러보니 곳곳에 나붙은 영화 포스터가 눈에 들어온다. 「도서전에 왜 영화 포스터?」 좀 더 들어가니 전시관 한쪽에 검은 천이 둘러쳐 있다. 「이건 또 뭐가?」 궁금증을 못 이기고 둘러보니 임시로 마련한 4백석 규모의 상영관이었다. 「히! 큰일이다. 도서전을 취재하러 왔는데 영화제로 바뀐 양이다.」

아득해진 정신을 추스리고 임시 극장 앞에 내걸린 상영 시간표를 찬찬히 훑어왔다. 집 세리든 감독의 신작 「In America」를 포함한 다섯 권의 영화, 제목이 낯설지가 않다. 모두가 베스트셀러였던 문학 작품을 원작으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의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정치적 책의 마케팅을 위해 대중에게 인기있는 영화를 활용한 주최측의 이벤트였던 것이다. 도서전 홍보담당인 줄기 열림은 「영화와 같은 대중문화를 전통산업인 출판과 적극적으로 연결시키고 신규 독자 정찰을 위해 재미있으면서 창의적인 이벤트를 많이 마련했다.」고 했다.

정말 그랬다. 책 홍보를 위해 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영화를 내세운 것처럼 작가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무히마드 알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취재기

리에게 양보해야 했다. 전시관 중심에 설치된 사각의 링. 그 위로는 주막을 날리는 알리의 거대한 걸개 사진이 내걸리고 뒷편에는 알리의 경기 장면을 담은 수백점의 사진이 전시돼 있었다. 독일 출판사 타센이 기획한 알리의 전기 「Greatest of All Time」의 홍보를 위한 소품들이다. 링 가운데 전시된 책은 알리의 생애를 3천장의 사진과 글로 담아내고 있었다. 무게가 무려 35kg. 1천부만 찍어내는 초판의 가격은 9백만

주빈국에는 9백평 정도의 전용 전시공간이 배정되고 영화나 연주,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국가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주빈국 행사를 치른 나라가 몇 년 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1990년 주빈국 일본은 4년 뒤에, 1997년 주빈국 포르투갈은 그 이듬해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었다. 이를 근거로 몇몇 출판계 인사들은 2005년을 전후해 우리 나라에서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일부 신문에서는 그들의 말을 인용해 「노벨 문학상 가능하다!」는 식의 기사까지 실었다. 과연 그럴까?

6전시관 1층에 마련된 한국관을 찾아 가보면 그것이 얼마나 선부른 기대인지 알 수 있다. 자리부터가 일본과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 밀려 입구에서 가장 먼 곳이다. 우리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곳이라면 외국 출판인들이 찾아오기가 쉽지 않을 터. 전시 부스 또한 가장 안락함을 정도다. 특징없는 디자인에, 원치않은 책 구성, 관람객들의 동선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전시대 배치. 더 큰 문제는 외국어로 번역된 우리 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노벨 문학상을 받으려면 외국에서 우리 문학 작품을 먼저 읽어봐야 할 것 아닌가?



林喜天(93년 人文大卒)
YTN 문화과학부 기자

2001년 한해 동안 한국어로 「번역」된 독일 서적이 7백여 권. 그런데 지금까지 독일에서 「소개」된 한국 서적은 모두 합쳐봐도 70여 권이란다. 노벨 문학상에 이 문제가 아니라 9백편에 달하는 전시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지를 당장 고민해야 할 처지다.

11월 18일 방한한 플케 노이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장도 한국이 2005년 도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유럽 작가들의 작품을 독일어와 유럽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13년 전에 주빈국이었던 일본은 당시 본으로 1백30여권을 도서전에 쏟아 부었다고 한다. 그런 투자가 있었기에 일본 출판이 본토에도 오르고 노벨 문학상도 탈 수 있었던 것이다.

뿌린 만큼 결는다고 하지 않는가? 한 나라의 문화 역량을 총체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2년 후 우리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시간은 별로 없는데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 것 같다.



朴成浩(93년 社會大卒)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수습기자 000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신문사든 편집국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면 편집국 전체의 관심사가 된다. 기업체 홍보실 직원이나 취재원으로 편집국을 방문한 사람들을 보면 대충 표시가 난다. 기업체 사람인지, 문화계 인물인지, 정부 관료인지, 이름표만 단 것도 아니라 차림이나 인상같은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신문사에 갓 들어온 수습기자도 마찬가지다. 편집국에서 못 보면 얼굴이고 아르바이트 학생도 아닌 젊은 사람들이 말쑥하게, 하지만 어딘가 어색하게 양복이나 정장차림을 하고 나타났다면 틀림없는 수습기자다.

한 두 마디 대화를 해보면 그런 추측은 확신으로 굳어진다. 수습기자들은

기자는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산다

선배기자들 「선배님」으로 부른다. 그러나 기존 편집국 기자들은 이런 호칭이 어법에 맞지 않다고 쓰지 않는다. 「선배」라는 말속에 존경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님」자를 붙이는 것은 중박으로 보는 것이다. 편집국 최고 어른인 편집국장도 막내 기자들이 「김국장」, 「박국장」으로 부른다. 선배기자들은 수습기자에게 출입처에서도 「님」자를 붙이지 말라고 가르친다.

술자리에서도 수습기자들의 무례(?)가 그대로 드러난다. 때문에 선배가 어려울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술을 마신다. 웃음을 쓴다. 10년 전 내 모습도 그랬기 때문이다. 선배기자들은 수습기자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술마시라고 권한다. 아니 강요한다고 보는 게 맞다. 취재원과도 그렇게 술마시라고 가르친다. 그 이유는 「우리는 대중한 관계라는 것이다. 결국 어떤 취재원을 만나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공격적으로 취재하라는 취지다.」

수습기자들의 「자기 소개서」는 웬대 「사회」의 공자, 「역사의 현장」, 「냉철한 문제의식」 등 거대담론이 대부분이다. 선배를 어려워하면서도 「대신문기자가 되려고 하나」라는 질문에는 자신만만하게 웅대한 포부를 밝힌다.

마냥 즐겁게 지내던 수습기자들의 표정이 요즘 어두워졌다. 선배기자들이 현장에 투입된 수습기자들을 「세계 돌린」 모양이다. 수습기간 6개월 동안 새벽 2시에 일이 끝나고 새벽 4~5시만 일어나 찬바람 맞으며 돌아다니니 웃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취재가 어디 쉬운 일인가. 취재에 조그

“ 막내 기자들이 편집국 최고어른을 「○국장」으로만 불러”

마한 실수가 있어도 선배기자들에게 엄정 혼나니 주눅들게 마련이다.

올해 유난히 수습기자들에게 눈길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있다. 12월로 기자생활 10년이 되기 때문이다. 수습기자로 교육하는 경찰기자는 아니지만 자라보라는 수습기자들의 모습은 엉망없는 10년 전 내 모습이다. 새벽 추위를 이기기 위해 쉴 이르게 깨내 입은 두툼한 동복 차림하며, 잠이 모자란 듯 피곤한 얼굴 등등.

수습기자를 보면서 어쭙잖게 기자생활 10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해보려 했지만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요즘 부자열풍이 불고 있으니 돈 문제에 관해 말하지만,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일반 사람들은 기자들이 정보에 빠르니 재테크에도 빠른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 반대이다. 인맥로 기자 가운데 주식투자자로 돈벌었다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그러면 「뭔가」를 이었는가. 이 대목에서 혼란이 생긴다. 그 「뭔가」가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 어렵고 점수를 매기는 데도 어렵다. 하는 일에는 보람을 느끼는가. 이것도 답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아마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약해졌을 것이다. 기사 마감이 매일 있기 때문에 신문기자는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사는 셈이다(물론 요즘은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하고 작성하는 기획기사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수년간 지내다보면 수습기자 시절의 원기 왕성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듯하다.

요즘은 수습기자를 가르쳐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10년간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무엇을 잃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10년 전의 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습기자를 보면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조금씩 알아 봐야겠다.

문학

新刊

■ 중국시론
—車柱環 著

추려서 중국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흥미있게 논술한 책.

이 책에서 다뤄진 중국의 시론은 詩歌의 이론, 시 작품의 비평, 詩敍의 주장, 시와 시인에 관한 기술 등 비교적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번 정보판에는 중국시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車동문의 논문 5편이 부록으로 실려있다. (서울대출판부·값19,000원)

■ 나라는 자신이 해친
뒤에 남이 해친다

—李東春 著



프스코 부사장, 성신여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李東春(63년 法大卒) 동문이 새로운 시각

에서 여러 사료문헌과 선학현인들의 역사문을 통해 한국사를 되돌아 보았다.

남아, 편민, 문무에 대한 존비배, 식민화·분단화에 연유한 겨레·나라의식 비관, 산업화·민주화 갈등에 배태된 불균형구조 문화적 전환기의 내재적 후진성을 지적한 후 그 일인을 사실의 현장과 역사인물들의 행태에 연결짓고 있다. (수정당·값25,000원)

■ 부자는 10대에 결정된다

—宋丙洛 著



모교 경제학과 宋丙洛(63년 商大卒) 교수가 부자와 경제에 대해 쉽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대한민국 경제 교과서.

『돈의 중요성과 부자』 『부자의 조건』 『경제일반』 『기업』 『국가경제』 등 전체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을 통해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10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년들에게宋교수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미래의 희망인 이들이 새롭고 흥미진진한 삶을 사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서울문화사·값12,000원)

■ 조영남 김에서
미술을 만나다

—趙英男 著



칼럼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趙동문이 서울 도심을 누비며 건물 외곽 또는 내부에 설치된 미술작품들을 찾아 그것들이 왜 아름답고 왜 가치 있는지를 특유의 해안으로 진단하고 평가한다.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환기시키고 부실한 내용, 잘못된 위치 선정, 작가의 비양심과 대중의 몰이해에 대해 가치있는 비판을 쏟아놓는다. (월간미술·값15,000원)

■ 미완성의 토론
(한국사의 무엇이 문제인가)

—金鎭世 著



사작으로 IMF 환란의 원인과 인사가 실종된 사회, 무너지는 인간관계 등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금이 가고있는 우리의 공동체의식, 폭력이 판치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책. (나남출판·값9,000원)

■ 미디어 선거와
마케팅 전략

—金基道 著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실제』라는 책과 다른 여러 글을 통해서 매체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한국방송기자클럽 金基道(72년 新大入)회장이 선거에 있어서의 미디어의 중요성을

조해은 한국방송기자클럽 金基道(72년 新大入)회장이 선거에 있어서의 미디어의 중요성을

추천의
窓속사포 강의·시약들의 독특한 냄새 “생생”
무의촌 진료·한일수교 반대 데모 등 애사 적극

成基浩(66년 醫大卒)前한일병원장

38년이 지난 아득한 그 시절, 예과는 청량리역 근처 붉은 벽돌의 교사와 활랑하고 드넓은 운동장이 있는 교정에서 보냈다. 전차나 버스로 등교하고 풀이 무릎까지 자란 운동장에서 『풍채측구』를 하고 배고프면 간식으로 불빵을 먹고 허기를 채우며 그런대로 낭만적인 예과 시절을 보냈다.

본과 연건동 캠퍼스로 왔을 때 분위기는 급변했다. 정자에 오셔서 마지막 1분까지 속사포식으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속기식으로 노트하셔도 그 양이 엄청난 기가 죽었다. 캠퍼스는 매연이 없고 의대 본관, 병원 건물의 예는 큰 건물이 없었고 사람들의 통행도 거의 없어 그윽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햇빛을 이고 있는 왕자같은 고목들이 숲을 이루고 본관, 시계탑, 합춘원 등이 고색창연하여 전체적으로 권위가 배어 나오는 것 같았다. 각과 실질상은 시약들의 독특한 냄새와 화학적 분위기로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했다. 처음 시제를 보

았을 때 놀랐고 그것을 밟고 밟고 베어가며 교과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는 감시한다는 묘미를 음미하며 인생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지, 눈시울을 붉히며 근엄해지기까지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여유를 찾아 합춘원 숲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답소하고 하교후 『학림』 등 근처 다방에서 커피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시험이 끝나고 얼마간은 농구도 하고 연극, 미술, 오케스트라 반원들은 토크쇼 그들의 장기를 연마하고 후에 발표도 했다. 뜨거운 여름밤, 도시락이 녹초가 되어 쉬려고 캠퍼스에 내려오니 숲속 여가져서 사랑의 소리가 들려올 땐 밤샘하니까 숨을 죽이며 우리들의 팔자

정리하고 분석해 발간한 책.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와 외국의 선거 사례들을 예로 들어가며 선거 문화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미디어 선거시대란 무엇이며, 그 시대의 선거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앞으로 미디어 선거시대를 대비해 선거 전문가의 교육과 양성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나남출판·값15,000원)

■ 히틀러의 뚝대로

주목 한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申哲植(89년 人文大卒) 동문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든든한 조연이자 충실한 심복이 되었던 조력자 6인(괴벨스, 피링, 히틀러, 헤스, 슈페

■ 히틀러의 뚝대로

—申哲植 譯

독일 쾰른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노는(90년 人文大卒) 동문이 신체심리치료를

를 한탄하곤 했다.

본과 3~4학년 시절은 이글이 나서 요령도 생기고 임상에서 오는 신선감으로 활력이 넘치고 여유도 있었다. 의대 체육대회와 무의촌 진료도 우리 가슴을 활짝 열어주었다. 1964년 신입생 환영회때 崔嘉準(59년 法大卒) 동문과 패티 김씨를 초청했는데 崔선생은 사례비를 극구 사양했고 처녀시절 고왔던 패티 김씨의 기억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한일수교 반대 데모 때 가운데 앉은 우리

들이 집종장이 원남동 로터리까지 진출했으나 정보보 알고 출동한 경찰들의 자기로 정찰계 트럭에 실려 동대문경찰서 2층 감당에 난처 연금됐다. 소식을 듣고 물러난 놀란 가족들이 삼평당을 옮겨보내 저녁을 먹고 각자 쓰고 풀려나왔다.

취터시일이 끝나는 대로 원남동 로터리나 풍로쪽으로 달려가 막걸리로 화제를 풀고 들어간 심신을 맘껏 풀었다. 가끔 중앙화(화투)도 했는데 불우하다 보

면 밤샘도 했다. 다음날 강의가 시작되면 위에서 교수님 강의소리가 들리고 밑에서는 속속이며 화투장을 돌리기도 했다. 먼동이 뜨기 전 창경원(현 창경궁)에서 호랑이의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고 북한산에서 내려온 짙은 짙은 구름으로 날아다니기도 했다.

3학년때 『아사쿠라』(밤 벚꽃) 구경 안내를 간청하는 대정출신 李근을 도와 창경원에 갔다가 지름의 부상을 만나 인연을 맺어 주년 일, 의사 시험 애사 문제전 건으로 타의대생들과 경쟁을 치른 후 3년이 승리했던 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내 인생에 제일 가치 있던 시절이 그때다.



능하게 했으며, 또 히틀러는 이들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고 전쟁과 학살을 통해 세계 정복을 꿈꾸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음력·값17,000원)

■ 또 나야

—이노는 譯

독일 쾰른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노는(90년 人文大卒) 동문이 신체심리치료를



이 책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삶의 피해의식에 대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쉽게 빠져들 뿐 아니라 한번 빠져들면 헤어지지 못하고 무력하게 버둥거릴 수밖에 없는 피해자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다.

피해의식의 발생과 영향에 대해 다뤘고, 피해자 역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양문·값8,800원)

(정리=安興基기자)



1965년 동기들과 함께. (좌로부터 첫 번째 필자)

화제의 동문

이화여대 스티븐 캐프너 감사



“태권도의 화려한 발차기에 반했어요”

절 미국 태권도 대표선수(라이트급·공인 6단)에 뽑히기에 이른다. 그러나 고집적인 무릎부상으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해야 했고 그에게 매번 했던 선수가 대신 출전해 88년 서울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러나 올림픽 관람차 서울에 왔다가 「세계태권도 학술대회」에 우연히 참가, 그곳에서 태권도를 이론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국기원에서 태권도 관련 학술자료 번역업무를 맡게 된 것. 그곳에서 그는 현재 대한태권도 협회 전무이사로서 있는 楊鎮方(86년 大學院)을 만나면서 서울대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캐프너 동문은 모교캠퍼스 활동을 통해 한국에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녹두거리 순대집에서 소주를 새벽 4시까지 마시면서 한국인의 끈끈한 정과 선후배의 질서를 체득했다.

현재 그는 연세대에서 수업을 받은 후 이화여대에 「한국문화개론」을 강의하고 있다. 체육학을 전공하고 태권도 선수로도 활동했던 사람이 문학도의 길을 걷는다는 게 다소 의외다. 「미국에서 학부생 일대 부전공으로 영문학을 공부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선 체육학과 문학을 이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에선 다 같은 학문이란 생각이 강합니다」

그는 지난 2000년 대산문화재단 후원으로 崔允의 단편집을 번역하기도 했다. 최근엔 崔仁勳, 金承鉉(65년 文理大學), 金英夏의 글을 즐겨 읽는다고 하며 최근 崔仁勳의 「회색인」을 번역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미국이든 어디든 한국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국문학 교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화려한 태권도 발차기에 매료된 그는 꾸준히 실력을 연마해 몬태나주립대 시

(南)

Noblesse Oblige

가을 농구대잔치가 한창인 요즘, 경기가 있을 때마다 코트에서는 선수들의 현란한 개인기와 상대수비를 뚫으며 득점하는 멋진 플레이가 펼쳐진다. 반면 경기장 한쪽에 마련돼 있는 각 팀의 감독 및 코치석에서는 감독이 목이 터져라 지시를 내리고, 자신의 팀 선수가 반칙을 받을 때면 심판에게 달려가 큰 소리로 항의를 해보기도 한다.

이러한 속마음은 상황에서 80세의 노인이 코치로 나서 선수들을 지도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면? 모교 농구부에서 30여 년간 코치로 봉사하며 지난 10월 14일 모교 개교기념식에서 「관여봉사상」을 수상한 張甲鎭(49년 南大人) 동문

모교 농구부 張甲鎭코치

30여 년간 학생을 지도하며 꿈 심어 주
“20대와 눈높이 맞추면 몸도 건강해져요”

「농구 협회에서 활동할 당시, 선배들과 모교 농구부를 다시 살리자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농구계에 종사하던 한 친구와 함께 70년부터 농구부 지도를 맡게 된 것이죠. 20대들과 동고동락하며 화로애락을 나누다보니 세대차이라고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나이 들었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내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활하다보면 마음도 젊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다 그런거지요」

그래서일까, 8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張동문은 멋진 선글라스에 긴장한 체격, 찰떡처럼 한 목소리로 농구와도 글세 전해지는 「외젠이 아저씨」로 통한다.

재학시절 친구들과 의기투합해 농구부를 만들었던 그는 그러나 6·25

전쟁이 터지면서 학업을 포기하는 대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군인시절에도 그는 국가대표선수로 뛰면서 농구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이후 張동문은 30세의 젊은 나이에 농구협회 이사를 맡게 되면서 지난 반세기동안 농구 발전 및 보급에 힘써왔다.

張동문은 바쁜 일과에도 일주일에 세 번, 모교에서 농구부 학생들과 명훈회를 한다. 농구부의 자람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그칠 줄 모른다. 「여름과 겨울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과 꼭 MT를 갑니다. 지난 30년간 한번도 빠진 적이 없지요. 또 대회에서 우승한 날이면 우리만의 어지트를 하나 빌려 밤새 숙도 마

시고 얘기하며 회포를 풀니다. 무엇보다도 10년 20년이 된 선배의 경조사에 후배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끈끈한 우정과 사랑으로 똘똘 뭉친 농구부들 제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꿈을 심어주고, 매사에 신바람이 나도록 옆에서 응원해주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선글라스 뒤에 숨겨진 그의 눈동자에는 학생들과의 행복했던 30년 세월의 잔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했다.

(表)



농구부 재학생들과 함께 (중앙 앉은이 張동문)



田溶星 변호사·동선의원 원장

네 명의 사위도 모두 동문, 청렴하고 정 많아

“修身齊家·근검절약을 생활기본으로 삼아라”

무료 진료, 무료 변론, 평인들기 운동 30여 년, 청소년 및 재소자 선도활동 등 다양한 경력과 이력으로 93세의 나이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松山 田溶星(50년 文壇大卒·65년 大學院卒·변호사·동선의원 원장)동문.

초등학교 시절 협회단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1938년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田溶星은 경성제대 부속병원에서 10년간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틈틈이 불우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펼쳤다. 더 넓은 시야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모교 정치학과에 입학한 田溶星은 재학시절부터 고등교사를 준비한 끝에 1955년 사립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공직생활 10년만에 법복을 벗은 田溶星은 또다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1968년 변호사사무실을 개소하고 무료변론에 나섰다. 이렇듯 그가 만화의 나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지닌 부인 故 朴復善여사가 田溶星 대신 병원을 운영하면서 남편 내조와 자녀 교육을 묵묵히 뒷바라지 해주었기 때문이다.

서울라이온스 회장, 국제라이온스 부총재, 서울시사회 법글교문 등을 역임한 田溶星동문은 라이온스클럽 내 평인단체에 3천여 만원을 출연하면서 평인들기 운동을 시작, 30여 년간 개인수술비를 지원했으며, 서울대총동창회 부회장 시절에는 특기장학금을 출연해 시각장애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금도 변호사 활동과 병행 운영을 하고 있는 田溶星은 뛰어난 기억력과 매일 새벽에는 등산과 배드민턴, 주말에는 낚시, 겨울에는 평을 사냥하는 등 남부럽지 않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 앉은이 田溶星동문, 뒷줄 좌로부터 세 번째 崔誠信동문, 한 명 건너 李寅炯·田溶星·洪性善(뒷사람) 동문, 한 명 건너 田惠子동문

한편 田溶星동문의 자녀(1남5녀) 모두 부친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끈기, 모친의 활발한 성격에 물려받았다. 특히 田溶星은 딸들도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공부와 관련된 일이라면 아낌없는 지원과 정성을 쏟았다. 장녀는 교강 선생으로 정년을 맞이했으며, 3녀는 활발한 농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고, 막내는 부친의 뒤를 이어 현재 동선의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활약하고 있다고 한다.

차녀 田惠子(65년 文壇大卒·경원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동문은 경원대 개교부터 20년간 후학양성에 헌신해왔으며, 洪性善(64년 法大卒·홍성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동문은 30년간 판사로 봉직하다 현재 강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洪性善은 사법연수원 시절, 부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손으로 대신 써줄 정도로 부인이 화업을 계속하는데 적극적으로 외조를 했다.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불러모아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던 田惠子동문은 자연스레 교수의 길을 걷게 됐고, 현재 강단 비평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위 崔誠信(92년 法大卒)동문은 서울지법과 춘천지법 판사를 거쳐 현재 미류크대 법과대학원 1년 석사 코스를 밟고 있다.

4녀 田哲子(72년 晉大卒·美뉴욕시 Excel School Director)동문과 남편 郭承容(71년 法大卒·美정신과 의사)동문은 미주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왔다. 모교 작곡과 졸업 후 애플컴퓨터대 석사학위를 받은 田哲子동문은 활발한 교육봉사 활동을 펼치며 30명의 교사를 거느린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뉴욕에서 Pre-School 교장 겸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양인은 田哲子동문 한 사람 밖에 없다고. 郭承容동문은 의사이면서 현재 뉴욕시 교육위원, Staten Island 아시안연합회장, 한미 자유민주연맹 미동북부지역 담당 부총재로 바쁜 나

차녀

田惠子(65년 文壇大卒)
경원대 교수

4녀

田哲子(72년 晉大卒)
美Excel School 교장

사위

林吉生(59년 工大卒)
前동북건설 사장

洪性善(64년 法大卒)변호사

李寅炯(61년 法大卒)변호사

郭承容(71년 法大卒)

美정신과 의사

손자사위

崔誠信(92년 法大卒)판사

날을 보내고 있다.

건축사 및 기술사로 활약해온 첫째 사위 林吉生(59년 工大卒·前동북건설 사장)동문은 田溶星동문의 병인과 자택을 직접 설계하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며 田溶星동문의 든든한 막간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얼마 후 재건축에 들어갈 병원 설계도 林동문이 맡을 예정이라고. 셋째 사위 李寅炯(61년 法大卒·법무법인 을곡 대표변호사)동문 역시 집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시절 무료 변론에 힘썼으며, 뛰어난 입담과 재치 있는 말솜씨로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로 통한다. 田溶星동문은 네 사위 모두 청렴하고 정이 많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소신껏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끝으로 田溶星동문은 “우리 집의 가훈은 ‘修身齊家’입니다. 내 몸을 잘 닦고 내 가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그다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항상 감사하며 효도하고, 자신을 교육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가정이 화목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근검절약을 생활기본으로 삼으라고 당부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력을 다하라고 강조합니다.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는 주범인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최고의 보약은 바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表)

건강을 지킵시다

「보톡스」로 탕탕한 피부 유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노년을 보다 건강하고 쉽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이 되어도 얼굴에 주름줄을 한 주름 없이 피부가 탕탕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톡스 주사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안전한 주름치료를 해나간다. 보톡스는 표정주름을 과도하게 짓게 만드는 안면근육을 약화시킴으로써 이마나 미간의 주름, 웃을 때 눈가에 조금조금하게 생기는 주름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치료법이다.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약화시키는 것이 치료 원리므로, 주사 후 일시적으로 표정이 약간 뻣뻣한 느낌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2~3주 지나면 자일로 좋아지며 그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주름이 사라진다.

시술 시간은 5분 정도, 시술 다음날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6개월 정도 지속된다. 일년에 두 번 정도 맞게 되는데, 이는 보톡스의 단점인 동시에 장점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미용시술의 경우,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도 평생을 그 상태로 지내야만 하는 데 비해 보톡스 주사 요법은 아무리 치료 결과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위상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놓고 시술받을 수가 있다. 6개월 정도 지난 후 그동안의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면 계속적인 치료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申基顯(85년 醫大卒)

신피부과의원 원장

또한 보톡스 치료법은 피부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가진다. 미간을 찌푸리는 현상 또는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눈을 치켜 들 때에 이마에 생기는 주름이 수년간 계속되다 보면 얼굴에 깊은 골이 패이게 되고 이런 주름은 일종의 흉터이기 때문에 보톡스로도 치료가 어렵다. 표정주름을 젊은 나이에 조기 치료하면 노인이 된 후에도 주름으로 인한 깊은 골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보톡스로 모든 주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입가에 생기는 필(八)자 주름은 필러(Filler)라고 하여 인체 구성물질과 똑같은 물질을 채워 넣어 교정한다. 이마, 미간, 눈가의 표정주름은 보톡스로 해결되지만, 피부 표면의 잔주름은 바르는 비타민 A나 비타민 C를 꾸준히 사용해 개선시킨다. 그 외에도 소프트 레이저펄싱, 제네시스 레이저, 더미지 고주파 요법, IPL 시술법 등 다양한 주름치료가 개발되고 있다.

(연락처 : 053-423-7575)

나와 건강법

휴일에 산 오르며 아침엔 선식 즐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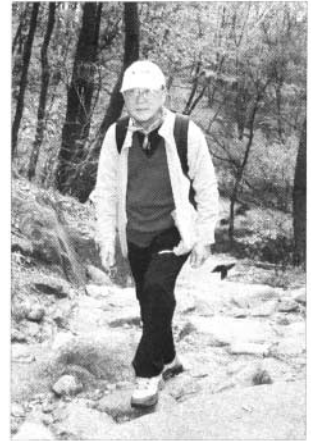
金正旭(58년 文理大卒)고등과학원장

어렸을 때부터 운동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무척 좋아했던 까닭인지, 얼마 전까지는 건강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다. 문리대 물리학과 시절에는 육상선수였고 미국에 가서는 테니스, 스키, 골프를 즐겨서 그랬는지 흔한 병원신세 한 번 진 적도 없었다.

6년 전 고등과학원 원장으로 부임해 고국을 떠난 지 38년 만에 아내를 미국에 두고 홀로 귀국하게 됐다. 동분서주 비싼 생활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다. 가장 즐기던 골프는 IMF이후 금지령이 내려져 포기해야 했고, 테니스도 해보았지만 적당한 파트너를 찾기가 힘이 들었다. 그렇게 적당히 할 만한 운동이 없어 고민하던 중에 친구의 권유를 받아 40년이나 된 등산 그룹의 멤버가 됐다. 매주 일요일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북한산 등지를 찾는 그룹이었다. 작년 여름 서울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입산이 금지됐던 날도 매표소 직원을 설득해 산을 올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산에 담긴 삶을 알게 된 후 이제는 골프 할 생각조차 나질 않는다.

산을 오르면서부터 고등과학원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장에서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습관이 돼 원내에서도 승강기를 거의 타지 않으며 가끔씩 지하철도를 이용할 때도 에스컬레이터를 제쳐 두고 계단을 두 개씩 건너뛰면서 오르곤 한다. 이제는 쉬는 토요일에도 내 발길은 산으로 향하고 있다. 일흔의 나이에 마음을 따라(從心) 백문대 정상에 태극기 옆에 서서 26미터 아래 웅성 길이 자리 작은 인수봉을 내려다보는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듯 나도 모르게 등산은 내 몸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건강관리의 필수조건에는 또 음식을 빼놓을 수 없다. 한때는 먹는 재미로 산다고 할만큼 좋은 음식,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 음식을 한 없이 즐겨 먹었으나 지금은 식성이 많이 달라



졌다. 80년대까지는 그렇게 칼로리나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한없이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조차 요즘처럼 음식이나 건강관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지금은 음식에 유난히 신경을 쓰는 아내(Johns Hopkins 보건대학 교수)의 권유에 따라 아침마다 선식을 먹는다. 거기에서 「오메가 3」이 많고 콜레스테롤도 줄인다는 아마인(flax seed)과 블루 그린 알갱이(blue green algae)도 섞어서 먹는다. 원래 생선을 좋아해서 육류는 가능한 한 피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약 40%는 의사를 위해서 먹는다는 말이 있지만 직책이 기관장이다 보니 실천이 어렵다는 것을 자주 느끼고 산다. 아무튼 현재 내 건강관리의 목표는 「To die young as late as possible」이다.

이런 열 합니다

④ 방송위원회



목동에 위치한 방송위원회.

「OO방송은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문구를 TV화면을 통해 알릴 한 두 번은 꼭 있어 있을 것이다. 물론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이렇듯 방송을 통해서 방송위원회가 알려진지 벌써 20여 년이 넘었다. 그러나 현재의 방송위원회는 더 이상 예전의 방송위원회의 기구가 아니다.

2000년 (통합)방송법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방송위원회는 우리 나라 방송 정책·행정을 총괄한다. 하지만 정부부처가 아니면서 일반 행정 부처와 다른 업무 수행하는 합의제 독립행정기구인 방송위원회를 쉽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새로 출범한지 4년째에 불과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위원회가 지니는 독특한 기관 성격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합의제 독립행정기구

방송위원회는 9인의 방송위원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위원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6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4인은 정부직 공무원이며 그 외 4인의 방송위원은 비상임 명예직이다. 중요 의결사항은 9인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요약되는 이러한 특징은 일반 독립제 부처와는 현저히 다른 점이다. 방송위원회가 이

러한 독특한 성격을 지니게 된 데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다.

방송위원회는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의해 방송심의의 중심의 공적규제기구로 81년 첫 출범을 시작했다. 당시 「언론기본법」은 「국보위」의 주도로 많은 언론인들의 강제 해직과 신문·방송의 통제하라는 방법으로 시행됐다. 방송의 상업주의 폐단을 시정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언론기본법은 방송의 정치권력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80년대 초반 5공화국 시절의 「행정뉴스」와 「정권의 나팔수」로 지칭되던 방송의 편파성 문제는 급기야 86년에는 전국적인 「시정교납부 거부운동」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당시 방송위원회는 법규정상으로 보나 그 운영의 실효로 보나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 자율성이 있는 기구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차후 방송위원회가 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규제기구로 변화하게 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1987년 '6·29 직선제 개헌선언' 이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방송법이 새로 제정됐으며 87년의 대통령 선거보도와 88년 5공 청문회 중에는 방송의 위력을 국민들에게 실감케 함으로써 방송-언론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방송에 대한 기본 관할권은 여전히 정부에 남아 있게 되고, 이후 1990년에는 방송법 개정

시청자 지향 중심의 방송 개혁

광고·프로그램 운용 등 정책 전반 조정

글 : 吳本謙(94년 人文大卒) 기획조정부 선임조사관

안의 남치기 통과에서 비롯된 방송노조의 방송제작 전면거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둘러싼 방송위원회와 정부의 마찰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1998년 金大中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송에 일대 변혁이 추진됐다. 공보처가 폐지됐으며 「신진방송체계 구축」에 대한 공개실천을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방송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방송개혁위원회는 1998년 12월부터 1999년 2월까지 비록 3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방송계에 산적한 과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방송의 틀을 마련했다. 방송개혁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보고서는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 형태로 방송위원회 위상을 제시했다.

방송개혁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종전의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등으로 나누어졌던 여러 관련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로 묶어냄으로써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됐다. 새 방송법은 종전의 방송위원회와 케이블TV의 도입을 위해 1992년도에 설립된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양 기관을 통합시켜 방송

총괄주무관이자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새로운 방송위원회를 탄생시키게 됐다.

방송위원회의 기본 목적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과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데 있다.

위원회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을 선도하고 디지털 산업의 촉이로서 방송산업을 육성하며 시청자 참여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방송문화의 정립과 시청자주권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디지털TV·방송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포함되는 등 방송의 산업적 중요성이 커져 가는 현실을 감안, 산업발전과 지원을 위한 분야에서도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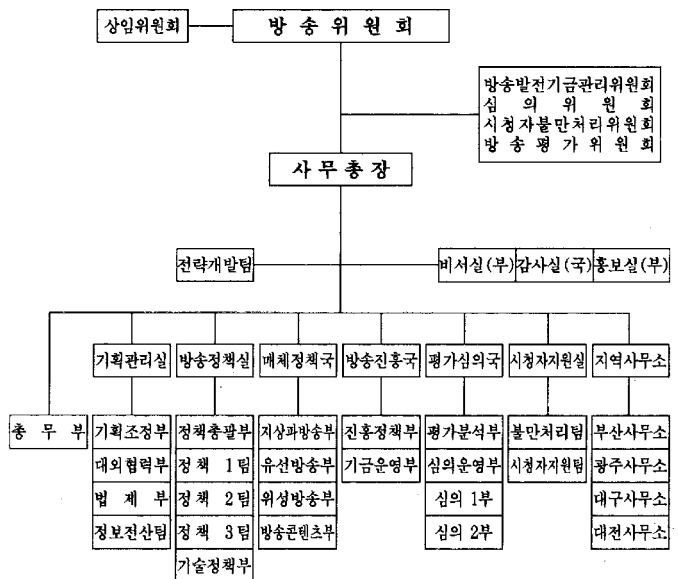
위원회의 소관 대상 방송사업자 수는 지상파방송 40여 개와 종합유선방송 1백20여 개, 위성방송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

2백여 개, 그리고 중계·음악유선방송 5백여 개 및 전광판방송 등을 포함하여 1천여 개에 달한다. 물론 관련 산업으로는 TV 수상기 및 관련 정비업체, 독립프로덕션 등도 위원회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의 기본계획수립,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 등 방송정책 전반에 관한 일을 한다.

둘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 추천, 승인, 등록, 취소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한다.

셋째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공공성·공정성·형평성 등을 유지·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방송심의를 수행한다.





李 孝 成 부위원장



成 裕 青 상임위원



朴 煥 永 상임위원



閔 丙 晚 위원



趙 廣 煥 위원



裴 希 洙 사무총장

네티즌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이사·이사·감사 임명 등 공영방송사 인사에 대한 권한이 있다. 다섯째 시청자 불만처리,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여섯째 방송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한다.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디지털TV 구축에 따른 융자지원금은 물론, 방송콘텐츠 활성화, 시청자 지원사업 등 여러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도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홍보에 관한 일 등을 하고 있다.

사무처·방송 전문가 집단

방송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3인이 관할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사무처에는 위원회와 동등한 임명되는 사무총장 1인과 1인170여 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위원회는 다양하고 보편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소속위원회 전문분야별로 두고 있다. 이러한 장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역할과 의사결정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법률에 의해 설치된 소속위원회로는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신뢰위원회(5개)」,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등이 있으며 그밖에 도 전문분야 업무수행이나 자문을 위한 특별위원회로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심사위원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심판위원회」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소속위원회에는 학계·법조계·방송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중인 30여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고 있다.

사무처는 2실·5국(2실)·18부(2실)·7팀·4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예산은 약 2백억원 규모이다. (조직도 참조)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기획관리실은 방송위원회의 회의를 운영하고 방송사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또 외국회 및 정부관련 업무, 예산편성, 규칙 제·개정, 국제기구 및 외국유사기관과의 협조·연락에 관한 일을 한다. 방송정책실은 채널운영·편성정책, 편성비율 고시,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실험서비스 도입·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아울러 남북한 방송교류, 방송시장의 대외개방, 경쟁촉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다. 매체정책국은 지상파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방송사업자의 허가, 허가료,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방송프로그램 유통 및 지원에 대한 정책수립·지령, KBS 수신료 승인, 공영방송·결산 승인 등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방송진흥국은 방송발전기금의 조성·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지원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방송발전기금 전수출고시 및 징수결정, 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심의국은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와 재산상황 공표와 프로그램 분야별, 전문분야별, 무관심분야의 준수여부에 관한 심의업무를 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심의·평가·제재, 프로그램 등급제 기준 등을 만든다. 그밖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우수프로그램 시상 및 지원 등의 업무도 실시한다. 시청자지원실은 시청자 불만처리, 시청자단체 지원, 미디어교육, 시청자 권익 보호제도 개선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방송제작 및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평가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업무도 맡고 있다.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는 지역별 소관사업자의 허가추진, 등록 등에 관한 행정업무 및 심의업무, 시청자단체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방송위원으로 5명 참여

1백80여 명에 달하는 전체인원 중 20명(소속위원회 위원 제외)의 동문들이 방송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2003년 5월 출범한 3년 임기의 제2기 위원회는 방송위원으로 **李孝成**(73년 文壇大卒) 부위원장(차관급)을 비롯한 다섯 분이 방송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李** 부위원장은 상공관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국방송학학장,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 등을 역임한 방송발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전문가로서 2기 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과 여러 방송정책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成** 상임위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언론자유추진운동으로 인해 해직된 후 민주언론운동에 적극 헌신해왔으며 한겨레신문사 이사 등을 역임했다. 제2기 위원회의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장이기도 한 **成** 상임위원은 2003년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방송인들간의 토론과 방송연성들을 소개하는 모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남북방송교류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여의도클럽」 회장을 겸하고 있는 **朴煥永**(40기 AMP) 상임위원은 KBS-SBS 본부장, 대구방송 사장 등의 풍부한 방송현업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행정 업무를 한리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다방면에 걸친 풍부한 지식과 참신한 아이디어의 소유자로 유명하다. 두산기업 사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광고주협회장 및 세계광고주대회 조직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閔丙晚**(56년 師大卒) 위원은 제1기 위원회부터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1·2기 위원회 간 정책들을 조율하게 조율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과 광고 발전에 있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趙廣煥**(82년 法大卒) 위원은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젊기도 하지만 오히려 날카롭고 꼼꼼함으로 위원회 정책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무처는 **裴希洙**(75년 文壇大卒) 사무총장과 **朴正洙**(77년 法大卒) 기획관리실장이 주축이 되어 사무처 운영 전반을 총괄지휘하고 있다. **裴** 사무총장은 KBS와 YTN, iTV 등 방송현업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에 탁월하며 업무에 있어서는 워커홀릭(Workaholic : 일 벌레)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일에 걸쳐 열정적으로 사무처를 이끌고 있다. KBS 입사, 청와대 정책비서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기획실장 등을 역임한 **朴正洙** 기획관리실장은 사무처 업무를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밖의 실무에는 소신 있는 업무처리로 방송심의와 방송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韓仁亨**(81년 社會大卒) 평가심의국장과 국정감사는 물론 방송관계 법률안 및 예산·방송발전기금 산하와 관련한 외국회업무 총괄하며 시민단체 업무를 처리하는 **洪亨植**(80년 社會大卒) 대외협력부장, 오랜 기간 정책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핵심 정책들을 개발하는 **金昌鉉**(81년 社會大卒) 정책연구부장도 활약

하고 있다. 또한 위성방송의 도입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위성방송에 대한 최고의 전문지식을 갖춘 **鄭煥根**(87년 社會大卒) 위성방송부장, 복잡한 유선방송 시장의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법대 출신의 **吳容宰**(89년 法大卒) 유선방송부장, 방송심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방송평가를 체계화하고 있는 **金明熙**(88년 人文大卒) 평가분석부장, 방송사업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金正洙**(88년 社會大卒) 정책2팀장 등 여러 동문들이 핵심적 위치에서 위원회 업무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도 시청자 지방 중심의 방송을 구현하는 데 있어 동문들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하며 아울러 이제 뿌리대리가 시작한 방송위원회가 탑승하는 열매를 맺어 시청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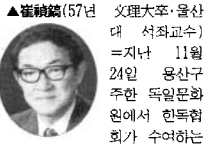
〈방송위원회 동문현황〉

이름	출생연도	직책
李孝成	73년 文壇대 지리학	부위원장
成裕青	65년 文壇대 정치학	상임위원
朴煥永	40기 AMP	상임위원
閔丙晚	56년 사대 사회교육	위원
趙廣煥	82년 법대 법학	위원(변호사)
金東興	65년 문리대 사회학	보도교양 제1실의위원
李昌根	78년 문리대 사정사학	보도교양 제1실의위원
白潤基	77년 법대 법학	보도교양 제1실의위원
李赫一	65년 문리대 철학	보도교양 제2실의위원
金宰浩	85년 법대 공법학	보도교양 제2실의위원
李昌煥	86년 농대 농생물학	연예오락 제1실의위원
智元龍	65년 법대 법학	연예오락 제2실의위원
金鼎煥	65년 문리대 국어국문학	연예오락 제2실의위원
尹玟濤	84년 법대 법학	연예오락 제2실의위원
成榮泰	71년 배대원 행정학	상공관계방송심의위원
李在善	76년 배대원 신문학	상공관계방송심의위원
朴秀男	77년 사대 화학교육	상공관계방송심의위원
金奎男	85년 법대 사법학	상공관계방송심의위원
金大準	65년 사대 국어교육	방송언어특별위원
陳善秀	75년 배대원 신문학	방송언어특별위원
朴煥根	77년 가정대 사정영어학	방송언어특별위원
李義榮	85년 인문대 언어학	방송언어특별위원
沈益榮	61년 공대 전자공학	시청자불만처리위원
金眞豪	65년 문리대 사학	시청자불만처리위원
陳行豪	70년 공대 화학공학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朴奇白	86년 사대 경제학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姜明秀	79년 배대원 신문학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金容城	79년 사대 신문학	방송평가위원
金孝模	83년 사대 경제학	방송평가위원
印雪堂	64년 문리대 사회학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심사위원
李載郁	80년 사대 신문학	국내 제작에니메이션심판위원
蔡龍錫	86년 미대 응용미술	국내 제작에니메이션심판위원
白鶴天	91년 미대 조소	국내 제작에니메이션심판위원
金錫大	70년 문리대 정치학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
金相均	72년 문리대 외교학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
朴元基	12기 AIC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
李南基	76년 배대원 신문학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
趙明均	87년 배대원 행정학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
裴善浩	75년 문리대 지리학	사무총장
朴正洙	77년 법대 법학	기획관리실장
韓仁亨	81년 사대 신문학	평가심의국장
洪亨植	80년 사대 정치학	대외협력부장
金昌鉉	81년 사대 신문학	정책총괄부장
鄭煥根	87년 사대 정치학	위성방송부장
吳容宰	89년 법대 공법학	유선방송부장
金明熙	88년 인문대 노어노문학	평가분석부장
金正洙	88년 사대 신문학	정책2팀장
申植根	87년 인문대 국문학	부산사무소 선임조사관
鄭正豪	90년 경영대 경영학	경북부산사무소 선임조사관
金正南	88년 인문대 영어영문학	비서실 선임조사관
眞本俊	94년 인문대 종교학	기획조정부 선임조사관
金延鎭	93년 인문대 영어영문학	심의윤곽부 조사관
李相根	98년 사대 정치학	법제부(변호사)

●현황이 파악된 동문 일부만 게재합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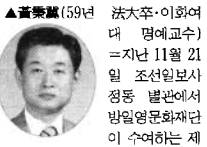
동정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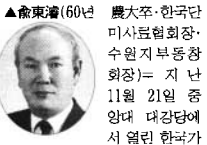


▲金善재(57년) 文理大·윤산대 석좌교수=지난 11월 24일 용산구 주한 독일문화원에서 한독협력가 수여하는 제3회 이미복상을 받음.

▲池 彦(58년) 工大·간삼중 합건축사 사무소 회장=지난 11월 18일 호암아트홀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최한 제3회 비취미 여성대상 시상식에서 달리아(여성 문화·언론 및 사회공익부문)를 받음.



▲李顯在(59년) 法大·이화여대 명예교수=지난 11월 21일 조선일보사 정종 별관에서 발달영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0회 「方一策」문학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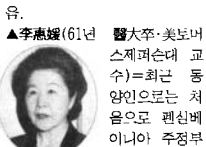


▲李顯在(60년) 農大·한국대 미사특별회장·수원지부 총장 회장=지난 11월 21일 중앙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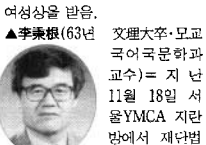
금학회 정기총회에서 국내 양제 산업 발전 및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적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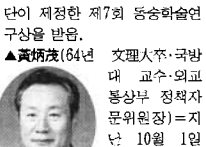
▲鄭鍾浩(60년) 文理大·모교 종교학과 명예교수=지난 10월 2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수여하는 저작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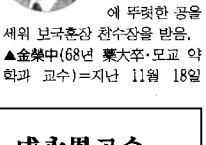
▲李顯在(61년) 醫大·美도버스제퍼슨대 교수=최근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펜실베이니아 주정부로부터 훌륭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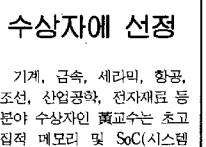
여성상을 받음.



▲李顯在(63년) 文理大·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지난 11월 18일 YMCA 지관 방에서 제4회 단이 재정한 제7회 동종학술연구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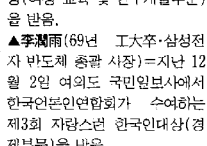
▲黃炳茂(64년) 文理大·국방대 교수·외교총장부 정책자문위원장=지난 10월 1일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보국훈장 한수장을 받음.



▲金榮中(68년) 藥大·모교 약학과 교수=지난 11월 18일



호암아트홀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최한 제3회 비취미 여성대상 시상식에서 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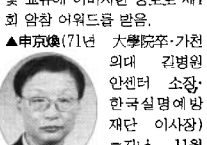
상(여성 교육 및 연구개발부문)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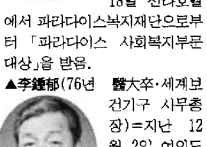
▲李顯在(69년) 工大·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지난 12월 2일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3회 자랑스런 한국인대상(경제부문)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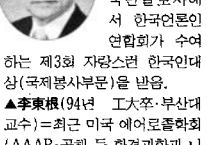
▲李顯在(70년) 商大·비봉출판사 대표=지난 10월 2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수여하는 출판인대상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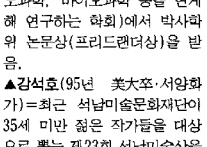
▲韓應洙(71년) 商大·산업연구원장=지난 11월 1일 열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AMCHAM)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에서 한미 경제협력 및 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1회 알함 어워드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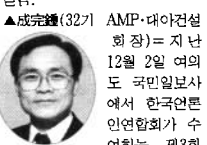
▲申京煥(71년) 大學院·가천외대 기병원 안면외 소장·한국실명예방재단 이사장=지난 11월 18일 신라호텔에서 파라다이스복지재단으로부터 「파라다이스 사회복지부문 대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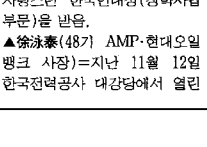
▲李顯在(76년) 醫大·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지난 12월 2일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3회 자랑스런 한국인대상(국제복지부문)을 받음.



▲李顯在(94년) 工大·부산대 교수=최근 미국 어어로학회(AAAR·공해 등 환경과학과 나노과학, 바이오과학 등을 연계해 연구하는 학회)에서 박사학위 논문상(프리랜서상)을 받음.



▲金榮中(95년) 美大·서양화가=최근 석남미술문화재단이 35세 미만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뽑는 제23회 석남미술상을 받음.



▲成完鎭(32기) AMP·대아건설 회장=지난 12월 2일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3회 자랑스런 한국인대상(장차사업부문)을 받음.

모교 미학과 吳炳南교수 제22회 「別巖學塾賞」 받아

모교 인문대학 미학과 吳炳南(63년 文理大·교수(사진))가 지난 11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콘서트홀에서 제22회 別巖學塾賞을 받았다.

吳炳南은 미학의 기본개념을 「미」와 「예술」로 보는 특유의 미학적 관점으로 서구 미학사상을 조망한 「미학강의」(서울예술문화)를 출간해 수상자로 결정됐다.

열업학술상은 別巖 朴繼海가 사들 기리기 위해 지난 82년 열업기념사업회가 제정했다.

제25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에서 금탑 산업훈장을 받음.

▲朴俊英(71기) HPM·울지병원 이사장=지난 12월 2일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3회 자랑스런 한국인대상(의료봉사부문)을 받음.

▲李光奎(60년) 師大·모교 인류학과 명예교수=지난 11월 5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임명됨.

▲姜碩熙(60년) 音大·계명대 특임교수=최근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에서 열린 국제현대음악학회 (ISCM) 총회에서 명예회원에 추대됨.

▲李康淑(61년) 音大·한국에슬잡학교 석좌교수=최근 대한출판문화협회로부터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명예회원으로 내정됨.

▲姜信浩(52년) 醫大·동아제약 회장·본회 고문=지난 11월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대행에 취임함.

▲金洙泰(52년) 醫大·모교 의과학교실 명예교수·아시아식학회 고문=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식학회 총회에서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명예회원에 위촉됨.

▲韓昌源(65년) 工大·모교 원자핵공학과 교수=최근 임기 3년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산하 국제원자력안전위원회 (INSAG) 자문위원에 위촉됨.

▲金萬吉(66년) 師大·前대한매일 사장=지난 11월 4일 한국신문서비스(주) 창립총회 및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최퇴는 제4회 세계 비선형해석학대회 (WCNA-2004)의 국제조직위원회 (GOC)에 위촉됨.

또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 중화민국과학재단 초청으로 타이완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 참석, 강연한다.

▲崔泰奎(59년) 農大·케이비씨 회장=지난 11월 11일 미국 캔톤에서 열린 국제카드제조업협회 (ICMA) 연

차총회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2년 임기의 회장에 선출됨.

▲鄭日宗(69년) 經大院·다산그룹 회장=최근 프레이지트호텔에서 열린 부경대학교 재

朴南奎·黃哲盛·成永恩교수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에 선정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인협회는 지난 11월 24일 제7회 「젊은 과학자상」 공학분야 수상자로 모교 공대 전기컴퓨터공학부 朴南奎(87년 自然大·교수, 재료공학부 黃哲盛(87년 工大·교수, 광주과학기술원 成永恩(86년 工大·교수)를 선정했다.

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등 분야 수상자인 朴南奎는 80년대 말부터 10여 년 이상 광통신분야의 핵심기술인 광집속부 연구에 몰두해 오면서 각종 중추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높은 연구업적으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朴南奎는 특히 차세대 광통신 연구가 코닝(Corning), 루센트(Lucent) 등 해외의 거대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핵심연구에 집중, 국제적으로 포인팅 지수가 5백50여 회에 달하는 등 독보적이고 선도적 연구활동을 인정받았었다.

기계, 금속, 세라믹, 항공, 조선, 산업공학, 전자재료 등 분야 수상자인 黃哲盛은 초고집적 메모리 및 SoC(시스템 온 칩) 반도체를 초고유전력과 강유전막 제조공정 개발 및 반도체 소자 적용에 관한 연구 업적을 높게 평가받았다.

화학, 식물, 고분자, 섬유, 생물공학, 공업화학 등 분야 수상자인 成永恩은 나노기술을 이용해 연료전지, 광기능성 소자 및 배터리 연구를 수행한 연구업적이 인정됐다.

21세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적 위기를 이겨 40여 미만의 젊은 과학자를 발굴 포상하는 이상은 1997년부터 자연과학분야와 공학분야에서 각각 4명씩을 격년제로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23명이 수상했다.

시상은 내년 1/4분기 중 대통령직접명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함께 앞으로 5년간 매년 3천만원의 연구장려금이 지급된다. (경)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金尙廷(70년) 法大卒·MBC 홍보심의국 심의위원=지난 11월 21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처장에 선임됨.

▲朴世遠(70년) 法大卒·모교 국제학과 교수=지난 11월 12일 선거구제 개편과 의원정수, 정당제 개편 등 정치개혁 입법 논의에 참여한 민간구인 「법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에 선임됨.

▲李秀一(70년) 法大卒·前경향대 학장=지난 12월 19일 호남대 광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호남대 제8대 총장에 취임함.

▲崔榮達(70년) 法大卒·감사원 제2국장=지난 11월 24일 감사원 제2사무처장에 임명됨.

▲李石浩(70년) 藥大卒·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약물평가부장=지난 11월 16일 식약청 개청식에서 국립 독성연구원장(1급)에 임명됨.

▲梁榮太(70년) 醫大卒·다지빌 지파타임즈 발행인=최근 국제공매법에 대비하여대연협회 사무총장에 선임됨.

▲文龍驤(71년) 師大卒·모교 교육학과 교수=지난 11월 13일 비영리공익재단인 청소년특별개발재단 제3대 이사장에 취임함.

▲尹容範(72년) 醫大卒·모교 내과학교실 교수=지난 11월 21일 그린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수화기내시경학회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이사장에 취임함.

▲李京浩(73년) 法大卒·前보건복지부 차관=지난 11월 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선임됨.

▲成相哲(73년) 醫大卒·분당 모교 병원장=최근 한국노화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李濟浩(73년) 醫大卒·삼성서울병원 원장(교수)=최근 열린 제27차 대한의학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선출됨.

▲河珍弘(73년) 大學院卒·하이트맥 부사장=지난 11월 6일 하이트맥주 생산담당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元世勳(74년) 法大卒·서울시 경정기획실장=지난 11월 1일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임명됨.

▲徐明德(75년) 美大卒·상법대 총장=지난 11월 19일 상법대 제7대 총장에 재선임됨.

▲鄭銀星(75년) 社會大卒·모교 사회학과 교수=최근 유엔 인권보조총장 진소위원회 정회원에 추천됨.

▲金奎一(76년) 工大卒·한양대 교수=최근 한국과학자단이 처음으로 공개 모집한 제4대 기초연구단장에 선임됨.

▲黃京秀(79년) 工大卒·한국다우유업 사장=최근 한국다우유업 회장에 선임됨.

▲李廷權(80년) 醫大卒·삼성서울병원 교수=최근 세라믹워터필트에서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에 취임함.

사장에 취임함.

▲庚炳德(82년) 經總大卒·前서울증권 상무=지난 10월 31일 한일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殷成沐(84년) 社會大卒·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장=지난 11월 17일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장에 임명됨.

▲康俊根(85년) 大學院卒·동국대 교수=지난 11월 5일 모교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선임 회장에 선출됨.

▲金周成(30기) AMP·코오롱 구조조정부본 사장=지난 11월 24일 코오롱그룹 부회장에 선임됨.

▲金振(47기) AMP·대한주택공사 사장=지난 11월 23일 대만 가오슝(高雄)에서 열린 아시아:대5종연맹 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취임함.

▲李義鉉(20기) AIP·대일특수강대점·대일대 대표이사(교수)=최근 노동부 산하단체 이사장 선출 심사위원회에 위촉됨.

▲鄭鍾煥(3기) SGS·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대년 1월에 출범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초대 이사장에 내정됨.

행사·출간

▲尹宗鉉(46년) 京城經濟專門學校卒·서울언론인클럽 회장=지난 11월 13~14일 유성아드리아호텔에서 「온라인저널리즘과 신문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언론인클럽 제8차 세미나를 개최함.

▲李榮德(52년) 師大卒·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회장=지난 11월 20일 유치림·초등학생운동화산교육지침서「이것만은 꼭 지킵시다」를 모교 사범대 교육연구소에 의뢰, 발간함.

▲申東憲(49년) 工大卒·만화가=지난 10월 31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경기도 이천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역사박물관에서 창작품 전시회를 개최함.

▲金奎一(57년) 師大卒·신성대 초빙교수=지난 11월 20일 동파주 구대방 공공도서관에서 고향을 맞아 출간한 저서 5권의 개정 중보판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洪淳吉(65년) 文理大卒·한국언론인클럽 회장=지난 11월 20일 한국언론인클럽에서 「한국의 대통령제,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오찬강연회를 개최함.

▲李相林(58년) 法大卒·연호사·한국사학회지·운동회의 회장=지난 11월 24일 일본 도쿄 교도부에서 열린 「아시아의 사형폐지 촉구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 「한국에서의 사형폐지운동의 현황」에 대해 보고함.

▲安秉憲(64년) 法大卒·한국대의총장=지난 11월 10일 그린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외대신문 교사 초청간담회에 참석, 동문 교사들과 대화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눔.

▲玄敬大(64년) 法大卒·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지난 11월 11일 중국 연변대에서 이 대화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와 중국의 역할」 학술회의를 개최함.

▲尹銘重(57년) 文理大卒·한국언론인클럽 회장=지난 11월 20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송승대 康元澤(85년) 社會大卒)교수를 초청, 「한국의 대통령제,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오찬강연회를 개최함.

▲李相林(58년) 法大卒·연호사·한국사학회지·운동회의 회장=지난 11월 24일 일본 도쿄 교도부에서 열린 「아시아의 사형폐지 촉구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 「한국에서의 사형폐지운동의 현황」에 대해 보고함.

▲安秉憲(64년) 法大卒·한국대의총장=지난 11월 10일 그린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외대신문 교사 초청간담회에 참석, 동문 교사들과 대화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눔.

▲玄敬大(64년) 法大卒·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지난 11월 11일 중국 연변대에서 이 대화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와 중국의 역할」 학술회의를 개최함.

▲司空空(64년) 商大卒·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지난 11월 7일 중국 연변대에서 이 대화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와 중국의 역할」 학술회의를 개최함.

▲李玉姬(64년) 醫大卒·서울유리당상임 이사장=지난 11월 20일(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7일(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모차르트, 슈만,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연주인생 40주년 기념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함.

▲申東澈(65년) 文理大卒·前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편집장·교수신론 운영위원=지난 11월 28일 한국언론재단에서 한국 언론현황에서의 30년을 소개한 「신문은 죽어서도 말한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沈秉吉(66년) 文理大卒·모교 철학과 교수=지난 11월 20일 중국 베이징 중국사회과학원 강단에서 「중국사회의사상」 중국판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沈秉吉(67년) 美大卒·前한국종합예술학교 감사·조각가=지난 11월 12~24일 종로 판촌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가나이트갤러리 66회 회초대전에 작품을 출품함.

▲李東勳(66년) 行大院入·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지난 11월 7일 송남대에서 열린 「21세기 지식사회의 도전과 기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金榮石(66년) 醫大卒·우석대 총장=지난 11월 19일 우석대 국제회의실에서 중국 산둥사범대 조연수 수 총장과 「한·중 합작 국제경제통상학부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金貴坤(67년) 農大卒·모교 조경학과 교수·한국환경복원학회 회장=지난 11월 7~8일 모교에서 「생태공원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宋榮塔(67년) 文理大卒·모교 철학과 교수=지난 11월 20일 중국 베이징 중국사회과학원 강단에서 「중국사회의사상」 중국판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沈秉吉(67년) 美大卒·前한국종합예술학교 감사·조각가=지난 11월 12~24일 종로 판촌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가나이트갤러리 66회 회초대전에 작품을 출품함.

▲李東勳(66년) 行大院入·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지난 11월 7일 송남대에서 열린 「21세기 지식사회의 도전과 기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한공대 총장·한국항공우주대학 회장=지난 11월 7일 송남대에서 열린 「21세기 지식사회의 도전과 기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李在祥(65년) 法大卒·한국철사정학연구원장=지난 11월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일반현황과 대책」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鄭正植(65년) 法大卒·울산대 총장=지난 11월 19일 울산대 행정문화관 대회의실에서 고려대 鄭允大 총장과 학술교류협정 그리고 학생교류·학점교환 협정을 체결함.

▲朴容範(65년) 商大卒·대한상공회의소 회장·분회 부회장=지난 11월 21일 서울 리스칼호텔에서 파과기술 부 박虎君(70년) 文理大卒)장관을 초청,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파과기술 정책 방향」을 주제로 조찬 간담회를 개최함.

▲李芳淑(65년) 醫大卒·연세대 교수·피아니스트=최근 선친인 어머니 李仁範(前 연세대 음대 학장)의 30주기를 기리는 독집 음반을 내놓음.

▲崔弘德(66년) 法大卒·한국산업기술대 총장=지난 11월 1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1세기 지식사회의 도전과 기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金榮石(66년) 醫大卒·우석대 총장=지난 11월 19일 우석대 국제회의실에서 중국 산둥사범대 조연수 수 총장과 「한·중 합작 국제경제통상학부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金貴坤(67년) 農大卒·모교 조경학과 교수·한국환경복원학회 회장=지난 11월 7~8일 모교에서 「생태공원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宋榮塔(67년) 文理大卒·모교 철학과 교수=지난 11월 20일 중국 베이징 중국사회과학원 강단에서 「중국사회의사상」 중국판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沈秉吉(67년) 美大卒·前한국종합예술학교 감사·조각가=지난 11월 12~24일 종로 판촌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가나이트갤러리 66회 회초대전에 작품을 출품함.

▲李東勳(66년) 行大院入·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지난 11월 7일 송남대에서 열린 「21세기 지식사회의 도전과 기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金榮石(66년) 醫大卒·우석대 총장=지난 11월 19일 우석대 국제회의실에서 중국 산둥사범대 조연수 수 총장과 「한·중 합작 국제경제통상학부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金貴坤(67년) 農大卒·모교 조경학과 교수·한국환경복원학회 회장=지난 11월 7~8일 모교에서 「생태공원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宋榮塔(67년) 文理大卒·모교 철학과 교수=지난 11월 20일 중국 베이징 중국사회과학원 강단에서 「중국사회의사상」 중국판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沈秉吉(67년) 美大卒·前한국종합예술학교 감사·조각가=지난 11월 12~24일 종로 판촌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가나이트갤러리 66회 회초대전에 작품을 출품함.

「서울평화상」 심사위원에

金相慶고문 등 9명 확정

서울평화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2004년도 제7회 서울평화상 수상자 선별을 위한 심사위원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심사위원으로 분회 고문인 삼양사 金相慶(49년) 文理大卒)회장 등 분은 9명이 선정됐다. 위원은 다음과 같다.

학술원 李瑞廷(54년) 醫大卒)회장, 울산대 崔鶴驤(57년) 文理大卒)석좌교수, 사회과학원 金奎一(54년) 法大卒)원장, 한국국제교류재단 李仁浩(55년) 文理大卒)이사장, 조선일보 安秉憲(61년) 法大卒·분회 부회장)부사장, 이화여대 柳莊熙(63년) 農大卒)국제대학원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崔圭奎(66년) 法大卒·동아일보 논설주간)회장, 중앙일보 文昌益(72년) 文理大卒)논설위원 실장. (별)

서울평화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2004년도 제7회 서울평화상 수상자 선별을 위한 심사위원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심사위원으로 분회 고문인 삼양사 金相慶(49년) 文理大卒)회장 등 분은 9명이 선정됐다. 위원은 다음과 같다. 학술원 李瑞廷(54년) 醫大卒)회장, 울산대 崔鶴驤(57년) 文理大卒)석좌교수, 사회과학원 金奎一(54년) 法大卒)원장, 한국국제교류재단 李仁浩(55년) 文理大卒)이사장, 조선일보 安秉憲(61년) 法大卒·분회 부회장)부사장, 이화여대 柳莊熙(63년) 農大卒)국제대학원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崔圭奎(66년) 法大卒·동아일보 논설주간)회장, 중앙일보 文昌益(72년) 文理大卒)논설위원 실장. (별)

월 18일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신성장전략 및 인적자원 개발」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함.

▲朴紀正(68년) 文理大卒·한국 언론재단 이사장=지난 21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제2회 언론인 홈페이지

공모 대상 시상식을 개최함. 또 22일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국경 브리핑 시스템과 외신 취재」를 주제로 외신기자 워크숍을 개최함.

▲李慕娜(68년) 法大卒·민족음악연구소 대표=지난 11월 22일 대전 정부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민족음악연구소 학술세미나 및 총회를 개최함.

▲盧宣鎬(69년) 工大卒·서강대 교수·21세기 비즈니스포럼 회장=지난 11월 24일 힐튼호텔에서 현대자동차

甲부사장을 초청, 「현대자동차의 경쟁력 비결」이란 주제로 윌레회를 개최함.

▲李相根(69년) 工大卒·에너지경제연구원장=지난 11월 5~7일 일본 동경에서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동북아 석유포럼」을 개최함.

▲丁海旺(69년) 商大卒·한국금융연구원장=지난 11월 25일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미국 예일대학의 로버트 제임스 쉐러 교수를 초청해 「새로운 금융 질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함.

▲鄭光和(70년) 文理大卒·대한 여성과학회 회장=지난 11월 13~16일 대전 배재대 21세기관에서 「제1회 여성과학기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

▲車明薰(70년) 美大卒·모교 강사·일본 교바 야시와함 전속 작가=지난 11월 19~30일 홍콩 소극동 금산갤러리에서

열여덟번째 개인전을 개최함.

▲朴憲烈(71년) 工大卒·충남대 교수=지난 11월 12일 영종문고 강남점 상설동 그랜드홀에서 「사이버북로 구축과 전자정부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함.

▲具秀烈(71년) 文理大卒·前교리연구이사·만나교회 메시아상가대원=지난 11월 25일 분당 아람 코리안다자

인센터 컨벤션홀에서 한국강리교신학원 孫善愛(85년 晉大卒) 교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베르디의 「무림에 가까이 오지 마라」. 아수인의 「내맘의 갈망」 등으로 독창회를 개최함.

▲姜錫鎬(71년) 商大卒·한국선물거래소 이사장=지난 11월

20~21일 대안산물거래소(TAIFEX) 주최로 타이베이(臺北)에서 열린 「2003 타이베이 글리산쇼 컨퍼런스」에 참석, 「한국 채권시장의 성공요인」을 주제로 강연함.

▲鄭明泰(72년) 法大卒·국민대 교수·북한법연구회 회장=지난 11월 27일 중국 정동 세실레스 호텔에서 열린 「바르도」를 주제로

▲金在鉉(73년) 商大卒·한국생산본부 회장=지난 11월 19일 힐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바로 잡아야 할 한국인의 자세」란 주제로 최고경영자 포럼을 개최함.

▲李煥昇(73년) 商大卒·국무연구원장=지난 11월 20~21일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사이버북로 구축과 전자정부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함.

▲鄭愛蓮(73년) 晉大卒·전남대 교수·소프라노=지난 11월 20일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나주시와 시의회가 공동 주최한 나주시민의 날 기념

독창회에서 「동심초」, 「나를 깨는 처녀」, 「그리운 금강산」 등을 선보임.

▲朴成漢(73년) 大學院卒·한양대 교수·대한전지공학회 회장=지난 11월 29일 천안삼북리조트 그랜드홀에서 일본 동북대 반도체 연구소장인 니시자와 준이치 교수를 초청,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함.

▲車旭仙(70년) 美大入·이화여대 교수=지난 11월 26~29일 대하로 문화공간 3층 극동갤러리에서 제7회 텍스타일 개인전을 개최함.

▲吳鍾南(75년) 法大卒·통계청장=지난 11월 19일 일본 도쿄에서 「통계에 본 한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미래상」을 주제로 특강함.

▲鄭孝準(75년) 商大卒·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문화부 회장=지난 11월 25일 서울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15회 아산사회복지상 시상식을 개최함.

▲徐浩鎬(75년) 醫大卒·고려대 교수=최근 의료계에 대한 현안과 공헌, 그리고 뛰어난 지도력을 평가받아 미국 명예의 전당(American Hall of Fame)에 등재됨.

▲李長熙(75년) 大學院卒·한국외대 교수·아시아과학연구원장=지난 11월 1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통일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제·정책 방안」이란 주제로 제38회 학술시민포럼을 개최함.

▲金明坤(76년) 師大卒·국립극장장=지난 11월 24~30일 일본 국제교육기금의 「문화인 초빙 프로그램」 2003년 초청자로 선정돼 일본을 방문함.

▲康寶英(76년) 晉大卒·서울교대 교수=지난 12월 3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쇼팽, 무스르스키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함.

▲朴明潤(76년) 保大院卒·한국파인트리플렛 총재·관악회 이사=지난 11월 29일 서울 논현동 논현클럽에서 「바로 잡아야 할 한국인의 자세」란 주제로 최고경영자 포럼을 개최함.

▲閔美蘭(77년) 晉大卒·공주교대 교수·대전 가야금 연주단 「창·홍」 대표=지난 11월 11일 엑스포아트홀에서 창·홍 제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함.

▲鄭瑞平(78년) 仁文大卒·MBC 기획국장·새인포럼 회장=지난 11월 21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현 상향에서의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함.

▲趙亨泰(78년) 工大卒·前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순천대 석좌교수=지난 11월 25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인생은 생방송, 나는 프리다」 출판 기념회를 개최함.

▲尹敬賢(78년) 工大卒·하나로 통신 대표=지난 11월 20일 하얏트호텔에서 11억 달러 규모의 역사유지를 마무리하는 Closing Ceremony를 개최함.

▲李珉柱(80년) 美大卒·3Heart LeeArt-F 대표=지난 12월 2~12일 종로구 내수동 갤러리장에서 「개개의 방에 그려진 共鳴線」의 노래」라는 주제로 제23호 개인전을 개최함.

▲金東秀(80년) 晉大卒·음악평론가·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지난 11월 20~23일 이탈리아 예

리시에서 열린 제8회 비시타르테 국제성과공쿠르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함.

▲玄東石(86년) 大學院卒·한양대 교수=지난 11월 19일 러시아 국립경영대로부터 한국과 러시아의 과학기술 교류 및 상호 연구협력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박사학위(국제경영학)와 명예교수직을 수여받음.

▲金敬植(90년) 醫大卒·모교 홍보과파괴실 교수=지난 11월 13~15일 미국 플로리다주 보너스 스프링스에서 열린 제50차 미국충후외과학회(STSA)에서 한국인 학자로는 유일하게 연제를 발표함.

▲李受恩(95년) 晉大卒·서경대 강사=張熙玟(96년 晉大卒·원광대 초빙교수)등과 함께 음악평론가들로부터 6인의 피아니스트에 선정돼 지난 11월 24일 명동성당 문화관 피아노홀에서 바흐, 모차르트, 쇼팽, 브람스 등의 다양한 작품을 공연함.

▲徐允普(98년) 晉大卒·피아니스트=지난 5월 5일 미국사주 협회에서 연주회 박사학위를 받은 후 10월 6일 뉴욕 카네기홀에서 데뷔 독주회를 마쳤으며, 지난 12월 11일(창원 성산아트홀), 14일(서울 예술의전당) 귀국 독주회를 개최함.

▲車重根(51기 AMP·유한양행 사장)=지난 11월 26일 인천대에서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유한양행의 경영철학과 전문경영인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함.

▲張基哲(33기 ACAD·한국지재장애협회회장)=지난 11월 17일 올림픽공원대 역도경기장에서 장애인 사회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보장을 위한 제3회 지재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지재장애인대회를 개최함.

(정리=安興賢기자)

모교 공대 丁觀洙교수

GM과 14만불 연구 협약 맺어

모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丁觀洙(77년 工大卒)교수(사진)가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GM)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丁교수는 내년부터 2년간 GM연구소와 14만 달러 규모의 연구과제 협약을 맺었으며 이는 그동안 국내 교수가 외국 기업으로부터 단발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적은 있으나 GM과 같은 세계 유수의 외국 기업으로부터 장기간 연구를 지원받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丁교수는 모교에 재직하기 전 세계 최대 알루미늄 회사인 미국 알코아(ALCOA)의 선임연구원으로 10년간 근무하면서 지난 95년 국제금속학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논문상



을 받는 등 세계적인 알루미늄 성형 관련 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丁교수가 연구할 분야는 철관보다 강도가 약해 실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알루미늄을 이용해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과 일본 히타치에서도 관심을 보여 GM연구소와 함께 4자 협력 산하의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李)



제15회 아산사회복지상 시상식을 개최함.

▲徐浩鎬(75년) 醫大卒·고려대 교수=최근 의료계에 대한 현안과 공헌, 그리고 뛰어난 지도력을 평가받아 미국 명예의 전당(American Hall of Fame)에 등재됨.



진 共鳴線의 노래」라는 주제로 제23호 개인전을 개최함.

▲金東秀(80년) 晉大卒·음악평론가·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지난 11월 20~23일 이탈리아 예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박용신(95년 農生大卒)·고승희 씨=12월 21일 14시.
·김대훈(98년 農生大卒)·김옥순 씨=12월 21일 15시 30분.

모교 사랑 실천은 동창회비 납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연회비는 장학사업을 비롯한 모교 지원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이사 : 2003년 8월 14일 ~ 2003년 10월 5일, 일반 : 2003년 8월 4일 ~ 2003년 10월 2일)

단, 회장단·상임이사·관악회 이사는 2003년 11월 30일까지의 납부현황이며, 중복 입원은 회장단에 게재함.

회 장 단

▲ 명예회장 金在淳=30만원
▲ 회 장 林光洙=500만원
▲ 상임부회장 孫一銀=50만원
▲ 부회장 韓斗鎭=100만원
▲ 부회장 李龍浩=100만원
▲ 부회장 尹勳煥=50만원
▲ 부회장 徐廷和=100만원
▲ 부회장 李南遠=50만원
▲ 부회장 李南遠=100만원
▲ 부회장 朴熙日=100만원
▲ 부회장 李古女=100만원
▲ 부회장 金貞權=100만원
▲ 부회장 高炳佑=20만원
▲ 부회장 李性中=50만원
▲ 부회장 趙有謙=100만원
▲ 부회장 張翼龍=100만원
▲ 부회장 鄭宗輝=50만원
▲ 부회장 辛東一=100만원
▲ 부회장 金宗鎭=50만원
▲ 부회장 朴寶實=100만원
▲ 부회장 李金器=100만원
▲ 부회장 金廣淑=100만원
▲ 부회장 孔大植=100만원
▲ 부회장 孫京植=100만원
▲ 부회장 安東勳=100만원
▲ 부회장 尹世榮=100만원
▲ 부회장 李相禹=50만원
▲ 부회장 花利澤=100만원
▲ 부회장 許鍾奎=100만원
▲ 부회장 洪性大=100만원
▲ 부회장 孫吉丞=100만원
▲ 부회장 劉常大=100만원
▲ 부회장 趙炳祐=100만원
▲ 부회장 許永夏=100만원
▲ 부회장 崔秉烈=50만원

▲ 부회장 卞柱基=100만원
▲ 부회장 金學俊=50만원
▲ 부회장 金英大=100만원
▲ 부회장 李容福=100만원
▲ 부회장 吳 明=50만원
▲ 부회장 玄在實=100만원
▲ 부회장 洪錫成=100만원
▲ 부회장 鄭廷鎭=100만원
▲ 부회장 柳 津=100만원
▲ 감 사 朴英俊=30만원
▲ 감 사 朱成民=30만원

관 악 회

▲ 이사 朴泰鉉=30만원
▲ 이사 張世一=30만원
▲ 이사 安聖哲=30만원
▲ 이사 金一燮=30만원
▲ 이사 李龍二=30만원
▲ 이사 朴明潤=30만원
▲ 이사 鄭八寶=30만원
▲ 이사 金秉順=30만원

상임이사

▲ 嚴淑子 간호대동창회장=20만원
▲ 成百詮 공대동창회장=20만원
▲ 李信子 미대동창회장=20만원
▲ 李相赫 법대동창회장=20만원
▲ 劉頌玉 생화학동창회장=20만원
▲ 李佑宰 수의대동창회장=20만원
▲ 李禮植 약대동창회장=20만원
▲ 梁源植 치대동창회장=20만원
▲ 金圭植 대학원동창회장=20만원
▲ 吳聖賢 보대원동창회장=20만원
▲ 丁永植 한대원동창회장=20만원
▲ 金正國 AMP동창회장=20만원
▲ 金方赫 HPD동창회장=20만원

▲ 南正明 AMPP동창회장=20만원
▲ 文憲一 AIC동창회장=20만원
▲ 曹南鎭 관무회동창회장=20만원
▲ 洪崇浩 ROTC동창회장=20만원

평생회비

▲ 朴재철 (86년 自然大卒)=20만원
▲ 韓중배 (73년 商大卒)=20만원
▲ 金동욱 (65년 工大卒)=20만원
▲ 金병준 (63년 醫大卒)=20만원
▲ 金명진 (84년 農大卒)=20만원
▲ 金潤正 (94년 工大卒)=20만원
▲ 金미자 (61년 畜大卒)=20만원
▲ 金병일 (64년 文理大入)=20만원
▲ 金昌은 (30기 ACAD)=20만원
▲ 金순태 (20기 ABP)=20만원
▲ 金원일 (65년 工大卒)=20만원
▲ 金鍾潤 (87년 工大卒)=20만원
▲ 金철우 (76년 醫大卒)=20만원
▲ 金홍민 (94년 醫大卒)=20만원
▲ 남성능 (86년 工大卒)=20만원
▲ 류남순 (74년 農大卒)=20만원
▲ 朴동원 (77년 自然大卒)=20만원
▲ 박육근 (74년 農大卒)=20만원
▲ 朴대훈 (82년 工大卒)=20만원
▲ 朴희운 (84년 醫大卒)=20만원
▲ 서병대 (60년 醫大卒)=20만원
▲ 성낙돈 (78년 大學院入)=20만원
▲ 안상준 (87년 自然大卒)=20만원
▲ 안준석 (89년 社會大卒)=20만원
▲ 오 준 (78년 人文大卒)=20만원
▲ 유 권 (82년 醫大卒)=20만원
▲ 윤영석 (66년 工大卒)=20만원
▲ 이귀영 (73년 工大卒)=20만원
▲ 이원표 (76년 工大卒)=20만원
▲ 이종찬 (94년 醫大卒)=20만원
▲ 임민직 (60년 工大卒)=50만원

▲ 장길봉 (66년 農大卒)=20만원
▲ 전지영 (87년 農大卒)=20만원
▲ 정대열 (81년 工大卒)=20만원
▲ 정성재 (83년 大學院卒)=20만원
▲ 조용섭 (58년 農大卒)=20만원
▲ 최차봉 (84년 工大卒)=20만원
▲ 한금남 (89년 農大卒)=20만원
▲ 안성희 (85년 醫大卒)=20만원

이 사

인문대학

▲ 曁성문

사회과학대학

▲ 이재간

자연과학대학

▲ 임춘호

경영대학

▲ 윤철도

공과대학

▲ 장정환 ▲ 김영남 ▲ 김재익
▲ 송여영 ▲ 송철조 ▲ 윤홍갑
▲ 이상각 ▲ 이상주 ▲ 이재기
▲ 이종훈 ▲ 정영희 ▲ 조일재
▲ 최관영 ▲ 홍상복

농업생명과학대학

▲ 구자웅 ▲ 김광호 ▲ 김일봉
▲ 심재철 ▲ 오상수 ▲ 오윤환
▲ 전용희

문리과학

▲ 구분태 ▲ 김동진 ▲ 박희주

▲ 배기훈 ▲ 오세정 ▲ 유성희
▲ 이상원 ▲ 장호원 ▲ 정서구

미술대학

▲ 임홍순 ▲ 한동주

법과대학

▲ 김기석 ▲ 김길경 ▲ 김승호
▲ 김영재 ▲ 김영훈 ▲ 박태영
▲ 배우남 ▲ 송성종 ▲ 신정환
▲ 안민일 ▲ 원우연 ▲ 윤재열
▲ 이 원 ▲ 이대공 ▲ 이대성
▲ 이상갑 ▲ 이우철 ▲ 이재중
▲ 이재현 ▲ 최교선 ▲ 최신태
▲ 한창민 ▲ 현종현

사범대학

▲ 김준우 ▲ 이돈희

상과대학

▲ 김기현 ▲ 김종원 ▲ 김홍구
▲ 남정우 ▲ 박정수 ▲ 박명규
▲ 박원배 ▲ 이연재 ▲ 이택섭
▲ 임재우 ▲ 장종복 ▲ 전제희
▲ 전철환 ▲ 정교관 ▲ 정덕용
▲ 홍승희 ▲ 황규백

생활과학대학

▲ 백희영 ▲ 황인경

수의과대학

▲ 조휴익 ▲ 차종상 ▲ 최성호

약학대학

▲ 이해정 ▲ 홍순익

의과대학

▲ 구철희 ▲ 김현우 ▲ 박대관



동창회보를 읽고

긴장 속에서 잠시 즐겨보는 여유

尹誠根(65년 農大卒)前Syngenta Korea 고문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쫓고 쫓기며 살아야 하는 긴장의 연속이다. 일상 생활에서도 일의 우선 순위에 따라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치밀함이 요구되고 있다. 작은 여유도 없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다. 옛날 농경시대의 여유가 그림자다. (그 때에도 나름대로의 긴장감은 있었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간을 내어 모교를 생각하고 학창시절을 추억하는 일이 손쉽지만은 않다. 우선 순위에서 한참 뒤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숨막히는 긴장감도 잠시잠시 맥을 끊어주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상식화된 지 오래다. 최근 리저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일 우리가 타임머신에 싣려 수십년 전 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대의 교정에서 그때의 학우들과 어울려 볼 수만 있다면, 이는 질 좋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과연 실현 불가능한 꿈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다. 동창회보가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회보는 타임머신이 되어 우리를 학창

시절의 추억 속으로 인도하여 현실 속의 긴장을 잠시 이완시켜주는 청량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도 잊을만하진 찾아와 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회보를 펴 들면 우선 여러 가지 학교 소식과 동창회 소식에 눈이 간다. 대중 뉴스제널을 통해서 접할 수 없는 소식

사들이다. 그러나 신경이 더 쓰이는 쪽은 아무래도 가벼운 터치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를 즐기고 싶은 잡재의식 때문일 터이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기사는 「서울대 가족」이다. 우선 가족사진이 흥미롭다. 연만하신 어른신들과 어린이들이 모두

때문일 것이다.

「화재의 동문」이나 「나의 건강법」은 다양한 활동 영역과 독특한 개성이 흥미롭다. 특이하다고도 할 수 있는 각 분야에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동문들과 건강 유지를 위한 비법을 즐기고 있는 동문들의 건투를 빈다.

「추억의 창」이 대부분 교정을 떠난 지 오래된 동문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추억담으로 정적인 이야기라면, 「동문기자의 취재수첩」은 현장의 체취를 느끼게 하는 발랄하고 재기 넘치는 현장이야기이다. 때문에 두 기사의 대조와 조화는 중후함과 예리함을, 추억과 현실을, 노년미와 패기를 같이 느낄 수 있어 흥미롭다. 특히 308호의 「추억의 창」은 같은 캠퍼스에서 같은 사대를 산 동문의 추억담이기에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한다.

전호의 홈커밍데이 기사와 회보 또한 동문들에게 관심을 유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더 많은 동문들이 모교 행사에 애착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동창회 회보 팀의 건투를 빈다.

동창회보는 타임머신이 되어 우리를 학창시절의 추억 속으로 인도한다

들이다. 동창의 한 구성원으로 학교 일에 관심을 갖게 한다.

변화에 동참하고, 흐름의 물결을 감지하게 한다. 심정적으로나마 발전을 위한 구상도 가능케 한다. 적극적인 참여의식이다.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박박하게 지면을 매운 동문들의 칼럼, 논설, 주장, 동정 모두 관심이 가는 기

한자리에 모여 선 가족사진, 점잖게 가는 대가족 제도를 지키려는 보루처럼 보여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여유롭다는 느낌이 앞선다.

대개의 경우 나와는 개인적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없는 동문 집안의 이야기나 기사에 빠져들다 보면 내자신의 이야기인 양 착각에 빠질 때도 있다. 부러워

건강기사 자세하게 다루어주길

金敬美(87년 家政大卒)한국증권협회 사무국장



87년에 의류학과를 졸업하면서 지금까지 회보를 받아보았으니 벌써 15번째 예독(?)하고 있는 셈이다. 회보는 그냥 보는 것이기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글을 써 기고하려고 하니 묘한 설렘과 함께 두려움도 느껴졌다. 워낙 글재주가 없어서...

의류학과를 졸업하던 해지만 88년에 다시 인유학과에 편입해 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몇 년을 계속 학교에 남아있어서 완전히 학교를 벗어난 것은 10년도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 학교는 나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가 되었다. 회보를 통해서 인간이 학교소식을 접하는 것이 나와 학교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나 할까.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신문은 대중 저널리즘을 몰아보고 지나가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동창회보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회보를 접할 때마다 가장 열심히 읽었던 기사는 건강에 관한 정보였다. 간단하지만 일상 속에서 소홀히 하고 있었던 점들을 볼 때마다 「맞아!」라고 맞장구치며 보곤 했었다. 몇

나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건강에 관한 기사를 실어 주었으면 한다.

11월 회보를 받아서 펴는 순간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등산대회에서 출다리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여든을 바라보는 선배님의 사진이 아름다운 대조로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느티나무 광장」과 「동문칼럼」을 읽으면서 이제 386세대의 마지막에 서있을 나까지 부끄러움을 느꼈다. 원지 386세대가 개척이라는 이름 하에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주범인 것 같아서다. 하지만 李吉女·洪麗善선배님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된 것에 이제 여성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자긍심과 더불어 한껏 부러움을 느꼈다.

「Noblesse Oblige」를 읽으면서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최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시간과 대우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소외되고 차별받는 계층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나는 항상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지만 한번도 그들을 위해 봉사해 본 적이 없다.

언제나 내 문제가 먼저였고 그들에 대해 마음만 아파했지 다가서려고 해 본 적도 없다. 鄭震集총장님의 개교기념사에도 우리가 속해있는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개을리하지 말라고 했듯이 이제 봉사는 그냥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교육 등 전반적인 면에서 변혁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우리 모두는 배가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인이자 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인으로서는 솔선수범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자임을 생각해 본다.

함께 나눌 때 행복해진다는 어느 교수님의 말을 되새기며 이 글을 마칠까 한다.

「Noblesse Oblige」를 읽으면

봉사활동이 자연스런 생활로 다가와

년 전에는 인연 제양의 어느 소아과를 개업하고 있는 동문이 글을 물었다는 대 기사를 올려놓고 소아과 위치까지 확인해 놓은 적도 있었다. (결국은 인연에서 서울로 이사오는 바람에 한 번도 가보진 못했지만...) 11월호를 읽으면서는 우리 남편도 혹시(?)하며 강연이 운운하다 편한 소리가 났었다. 나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을 보니 나이는 속일 수 없

등산대회에 한 번 참석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힘들긴 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항상 10월이 되면 언제 등산대회를 하든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금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날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왜 그때마다 일이 생기는지 올해도 결국 참석하지 못하고 말았다. 내년에는 나도 딸과 함께 꼭 참석해야지.